

☐자료 가1-72 (수사기록 507)

기안용지
(전화:530-4941)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2753

시행일자 1991. 5.

주임검사 박경순

수신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교회

참조 주임신부 조순창

제목 수사 협조 의뢰

1991. 5. 8 서울 마포구 신내동 소재 서강대 구내에서 발생한 변사자 김기철의 변사 사건을 당청에서 수사중, 현재 귀 성당 구내 성모동산 일대에 일시 거처하고 있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 강기훈에 대하여 수사할 필요가 발생하여 1991. 5. 20. 11:30경 당청 강력부 소속 박경순 검사가 위 강기훈에 대하여 당일 15:00까지 동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으나, 위 강기훈이 이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위 강기훈에 대하여 동인이 5. 22. 14:00까지 당청 박경순 검사실로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자료 가1-73 (수사기록 508~512)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송명석

제목 감정의뢰 회보 접수보고

변사자 김기철에 대한 내사사건에 관하여 1991. 5. 8 사체검사시 사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서를 금일 마포경찰서로부터 제출받았기 수사보고합니다.

첨부 : 감정의뢰 회보 1부. 끝.

1991. 5. 2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성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회사 23110-5190 (698-2012) 1991. 5. 14

수신 마포경찰서장

제목 감정의뢰 회보

1. 마경23110-311 (91. 5. 9.)과 관련됨.
2. 위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함.

첨부 : 감정서 3부. 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감정서(1)

국과수연제 이화삼23110호(대 마경 23110-311호
1991년 5월 9일)

의뢰관서명 마포경찰서

1. 증거물 증2호
무색플라스틱통에 든 혈액 약 30g.

2. 감정사항
일반독물 및 마약류 검출여부.

3. 시험
이화학적 시험법에 의한
가)증2호에서

- 1) 청산염(셀바인)의 확인반응.....음성
- 2) 바르비탈산 유도체류의 확인반응.....음성
- 3) 알칼로이드류의 확인반응.....음성
- 4) 유기염소계류의 확인반응.....음성
- 5) 유기인계류의 확인반응.....음성

- 6) 카바메이트류의 확인반응.....음성
- 7) 아편알칼로이드류(모르핀등)의 확인반응.....음성
- 8) 코카알칼로이드류(코카인등)의 확인반응.....음성
- 9) 합성마약(페치딘등)의 확인반응.....음성

4. 감정결과

이상과 같은 시험결과 증2호에서 청산염, 바르비탈산 유도체류, 알칼로이드류, 유기염소계류, 유기인계류, 카바메이트류, 아편알칼로이드류(모르핀등), 코카알칼로이드류(코카인등), 합성마약(페치딘등)이 검출되지 않음.

5. 비고

감정물은 시험에 전량 소모하였음.

서기 1991년 5월 14일

감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 4과 임미애 심미옥

감정서(2)

이화삼제23110- 호(대 마경23110-311호 1991년 5월 9일)

의뢰관서명 마포경찰서

1. 증거물 증1호
변사자가 입고 있었던 타고 남은 옷가지

2. 감정사항
타고 남은 옷에 묻은 인화물질의 종류.

3. 시험

- 가) 외관검사
증거물인 바지, 팬티(상표:백양), 티셔츠 및 양말은 혈액이 다량 부착되어 있으며, 반연소된 상태임.

- 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험법에 의한 인화성물질

확인시험

- 증거물인 티셔츠에서 키시렌이 미량 검출됨.

4. 감정결과

이상과 같은 시험결과 증거물인 바지, 팬티, 티셔츠 및 양말은 반연소되어 있으며, 티셔츠에는 혈액이 다량 부착되어 있고, 나)항 시험시 증거물 중 티셔츠에서 신나류의 일부성분인 키시렌이 극미량 검출됨.

(참고 : 증거물에서 검출된 키시렌은 신나류에 용도에 따라 혼입하여 사용하며, 신나류가 연소중 소화(消火)될 경우 저비점물질은 급격히 연소시에 휘발되고 고비점물질이 잔류되므로 증거물에서 검출된 극미량의 키시렌만으로는 신나류의 종류에 대하여서는 언급할 수 없음).

5. 비고

증거물 잔량은 반환함.

서기 1991년 5월 10일

감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 3과 장성길 김상현

감정서(3)

이화이제23110 - 호(대 마경23110-311호
1991년 5월 9일)

의뢰관서명 마포경찰서

1. 증거물 증2호
백색플라스틱병에 든 혈액 약30g.

2. 감정사항
혈중 알코올의 검출여부.

3. 시험

이화학적 시험법에 의한.

- 증 2호에서 혈중 알코올의 확인시험.....음성

4. 감정결과

위와 같은 시험결과 증제2호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음.

서기 1991년 5월 13일

감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2과 김동욱 문성숙

☐자료 가-1-74 (수사기록 513~51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의 2311-5416 (698-2012) 1991. 5. 20.

수신 서울지방검찰청
제목 감정의뢰 회보

1. 강력2311-12016(91. 5. 13)과 관련됨.
2. 위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함.

첨 부 : 감정서 1부. 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감 정 서

국과수연제 범의23110호(대 강력23110-12016호

1991년 5월 13일)

의뢰관서명 서울지방검찰청

1. 증거물

증제1호는 담배꽂초 31개임.

증제2호는 담배꽂초 9개임.

2. 감정사항

증제1호, 2호의 혈액형 여하.

3. 시험

(타액확인 시험)

증제 1호 및 2호는 공히 양성으로 반응하였음.

(혈액형 감별 시험)

증제 1호의 8개와 증제2호의 5개는 A형으로, 증제1호의 23개와 증제 2호의 4개는 O형으로 반응하였음.

4. 감정결과

증제1호 및 2호는 공히 타액반응 양성으로 반응하였으며, 증제1호의 8개와 증제 2호의 5개는 A형으로, 증제 1호의 23개와 증제 2호의 4개는 O형으로 반응하였음.

서기 1991년 5월 18일

감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의학 2과 이영애

☐자료 가-2-11 (동아, 91년 5월 21일)

"확증있다" 「필적」공방 "날조 모략"

金基高씨명의 遺書 檢察-全民聯 맞대결

수첩 넘겨받아... 일부내용 빠져 의혹 편지寫本 공개... 육안으로 확인가능

김기고(金基高) 씨의 유서(遺書)가 검찰과 국민연립(全民聯)의 맞대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유서본을 공개하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연립은 유서본 일부 내용이 빠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립은 유서본을 넘겨받아 일부 내용을 빠져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유서본을 공개하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연립은 유서본 일부 내용이 빠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립은 유서본을 넘겨받아 일부 내용을 빠져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유서본을 공개하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연립은 유서본 일부 내용이 빠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립은 유서본을 넘겨받아 일부 내용을 빠져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유서본을 공개하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연립은 유서본 일부 내용이 빠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립은 유서본을 넘겨받아 일부 내용을 빠져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유서본을 공개하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연립은 유서본 일부 내용이 빠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료 가-2-12 (동아, 91년 5월 21일)

檢察-全民聯-명에 걸린 一戰

1991. 5. 21. 동아

승의여전 메모, 총자료집 I 책 375쪽 참조.

1991년 5월 21일 오후 2시

명동성당에서 가진 기자회견문

1. 고 김기설씨 수첩, 검찰제출 경위에 대하여

- * 20일 아침 9시 기자회견 통해 수첩 공개
 - 아침 11시경 검찰측 공문 전민련 사무실에서 접수.
 - 오후 4시경 공개리에 명동성당에서 전달하려 했으나 검찰 거부.
 - 오후 7시경 이석태 변호사와 최규성 상집위원, 검찰청에 직접 가서 사본을 확인받고 원본 제출함(인수증 받음)
- * 수첩은 분신 당일 홍성은양이 김기설씨 수첩이라며 전달한 것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음.

2. 검찰의 20일 "김기훈씨 85년 경찰진술서와 고 김기설 등지의 유서, 동일필적" 발표에 대하여

- * 87년 옥중에서 작성한 김기훈씨의 편지가 육안으로도 유서필체와 다름이 분명한데도 이에 대한 언급없이 85년 진술서 필체가 유서필체와 같다는 주장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
- * 85년 진술서 원본 필체를 공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어떤 근거에서 동일필체로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며, 이 필체를 담당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책임있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87년 편지를 비롯한 김기훈씨의 다른 필체에 대해서도 공개리에 필적감정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

3. 김기설씨의 최근 필적에 근거하여 유서필체를 감정할 것을 요구한다.

- * 20일 검찰측에 제출한 김기설씨 수첩필체와 유서필체를 조속히 대조 감정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 * 오늘 발표하는 제3차 제출의 김기설씨 필체24에 대해서도 유서필체와의 대조감정을 실시하라.(근거자료 1 참조).
- * 85년 필체를 비롯한 일련의 김기설씨 필기습관에서 나타난 특징점(근거자료 2 참조).

4. 검찰 발표의 "카페 대책모임"에 대해서

5월 12일 장례일에 장지인 마석에 다녀온 후 오후 8시경 종로 5가 소재 도이치호프에서 홍성은 등 후배 4명과 술을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와 농담을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이것이 소위 검찰에서 말하는 "카페 대책모임"이다. 다시 5월 일 시경 전민련 사무실에 있는데 홍성은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전화가 와, 나가서 만났는데,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 같다고 해서,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졌는데 조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조사를 받더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유서대필과 관련된 은폐모의를 했다는 발표는 전혀 터무니없는 왜곡날조이다.

24) 승의여전 메모, 총자료집 I 책 375쪽 참조.

자료 가-3-8

1991년 5월 21일 오후 2시

명동성당에서 가진 기자회견문

- 고 김기설씨 수첩, 검찰제출 경위에 대하여
 - * 20일 아침 9시 기자회견 통해 수첩 공개
 - 아침 11시경 검찰측 공문 전민련 사무실에서 접수.
 - 오후 4시경 공개리에 명동성당에서 전달하려 했으나 검찰 거부.
 - 오후 7시경 이석태 변호사와 최규성 상집위원, 검찰청에 직접 가서 사본을 확인받고 원본 제출함(인수증 받음)
 - * 수첩은 분신 당일 홍성은양이 김기설씨 수첩이라며 전달한 것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음.
- 검찰의 20일 "김기훈씨 85년 경찰진술서와 고 김기설 등지의 유서, 동일필적" 발표에 대하여
 - * 87년 옥중에서 작성한 김기훈씨의 편지가 육안으로도 유서필체와 다름이 분명한데도 이에 대한 언급없이 85년 진술서 필체가 유서필체와 같다는 주장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
 - * 85년 진술서 원본 필체를 공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어떤 근거에서 동일필체로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며, 이 필체를 담당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책임있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87년 편지를 비롯한 김기훈씨의 다른 필체에 대해서도 공개리에 필적감정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
- 김기설씨의 최근 필적에 근거하여 유서필체를 감정할 것을 요구한다.
 - * 20일 검찰측에 제출한 김기설씨 수첩필체와 유서필체를 조속히 대조 감정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 * 오늘 발표하는 제3차 제출의 김기설씨 필체24에 대해서도 유서필체와의 대조감정을 실시하라.(근거자료 1 참조).
 - * 85년 필체를 비롯한 일련의 김기설씨 필기습관에서 나타난 특징점(근거자료 2 참조).
- 검찰 발표의 "카페 대책모임"에 대해서

5월 12일 장례일에 장지인 마석에 다녀온 후 오후 8시경 종로 5가 소재 도이치호프에서 홍성은 등 후배 4명과 술을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와 농담을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이것이 소위 검찰에서 말하는 "카페 대책모임"이다. 다시 5월 일 시경 전민련 사무실에 있는데 홍성은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전화가 와, 나가서 만났는데,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 같다고 해서,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졌는데 조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조사를 받더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유서대필과 관련된 은폐모의를 했다는 발표는 전혀 터무니없는 왜곡날조이다.

24) 승의여전 메모, 총자료집 I 책 375쪽 참조.

5.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하여

- * 우리는 검찰의 터무니없는 분신배후설 날조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의 규명을 위해 최대한의 협조와 성실한 자세로 일관되게 임해 왔다. 분신 이후 초기에 검찰의 요구에 따라 현장 유품과 김기설씨 필적이 담긴 업무일지를 넘겨주고 임근재씨가 조사에 응했으며, 20일에는 검찰측의 요청에 따라 김기설씨 수첩 원본을 넘겨주고, 강기훈씨의 필적을 공개하며 공개적이고 안정된 장소에서의 검찰조사에 기꺼이 응할 것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우리의 순수한 협조를 역이용 계속적인 왜곡선전을 계속 하며 날조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다.
- * 초기 분신현장 유품을 양쪽이 함께 입회하여 확인해 놓고도 검찰은 "분신현장에 인화물질(라이타)이 없었다"라고 발표했었고, 또 확실한 근거도 없이 "분신현장에 2-3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등 분신배후설을 유포하였다.
- *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동일성 여부를 논단할 수 없음"이라는 중립적 판정임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다른 필적인 것을 전제로 여론을 호도하였다. 검찰의 이런 수사 태도는 최근 국민의 민주화 개혁 요구에 대해 근본적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오히려 탄압을 앞세우는 정권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진실로 사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신변위협에 처해 있는 강기훈씨에 대해 검찰에 출두할 것을無理하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제3의 안정된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6. 우리의 입장

우리는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상적 판단능력과 필기능력을 갖춘 사람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유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필케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써 납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모두에게 묻고 싶다.

설령 검찰 주장대로 분신을 공모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검찰의 치졸하고 저능아적인 발상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에게 인간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 상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특히 검찰이 행방불명된 홍성은양의 현재 행적으로 밝히고 더 이상의 홍성은양에 대한 협박을 중지하며 몇몇이 공개리에 수사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민주화운동의 도덕성과 양심 그리고 진실을 걸로 있는 사실 모두를 밝히고 있으며, 진실의 규명과 정의의 승리를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1991년 5월 21일

전 국민족 민주운동연합

◎ 91년 5월 22일 ◎

□자료 가-1-75 (수사기록 515~516)

1991. 5. 22

박 세 용

진 술 서

□자료 가-1-76 (수사기록 497~498)

본 적 : 서울

주 소 : 서울!

근무처 : (주)다다 인터내셔널 전무

성 명 : 박세용

압 수 조 서

피의자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사 임철은 검찰주사(보) 안택영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1991. 5. 22. 14:00분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열미리 386-2 소재 (주)다다에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1991. 5. 22.

서울지방검찰청

김 사 임 철

검찰주사(보) 안택영

압 수 경 위

분신자살한 김기설이 1990. 10. 31.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열미리 386-2 소재 (주)다다인터내셔널에 입사하면서 위 회사에 자필이력서 1매를 제출하였다는 첩보에 따라, 1991. 5. 22. 14:00경 위 회사에 임하여 위 회사 전무 박세용에게 위 이력서 1매를 본건 증거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바, 동인이 임의 제출하므로 별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영장없이 이를 압수하다.

본인은 87년 다다 인터내셔널에 입사하여 본사 근무 90. 3월부터 현재까지 공장책임자(전무)로 근무 중이며 생산직 김기설은 사원도입공고를 보고 1990. 10. 31일 당사에 내사하여 입사케 됐으며 근무부서는 세공반(기계반)에서 보조공으로 1990. 10. 31 - 1990. 11. 12까지 근무하다 자진 퇴사 하였음.


입사시 구비서류로 이력서, 주민등록등초본, 신원증명, 재정보증, 사원인사기록카드를 구비토록 하였으나 이력서, 주민등록등초본만 구비하고 자필로 사원입사카드만 작성, 추후 신원증명 및 재정보증을 독촉하였으나 제출치 않고 자진 퇴사하였음.

김기설 입사시 이력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가지고 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원인사기록카드는 생산부 김완수 차장이 김기설의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성장소는 저희 회사 사무실 내에서 입니다.

위 이력서와 개인별주민등록표, 세대별주민등록표, 사원인사기록카드를 요청에 의하여 서울지검 강력부 직원에게 임의 제출합니다.

압 수 목 록

증제 번호	물 건	수 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비고
10-1	이력서(김기설 작성)	1매	경기도 (주)다다 박세용	좌 동	

	이 력 서	
	성 명	김 · 기 설 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시기 1968년 11월 27일생 (만 24세)	
주 소	경기도	
호적관계	호주와의관계	부인의 부
호주성명	김 정 언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81. 2. 16	경란 중 학교 졸업	
81. 3. 3	서울 수도 전기 공업고 "응배전파" 입학	
83. 4. 20	"등교" 자퇴	
85. 12. 11	육군 제 8136 부대 입대	
88. 6. 23	육군 제 8136 부대 퇴대	
88. 9. 10	모드 스포츠 라이프 입사	
89. 9. 23	퇴 사	
89. 10. 10	선릉 식육 입사	
90. 9. 21	퇴 사	

☐자료 가2-13 (동아, 91년 5월 22일)

「수첩」 全民聯 보관경위 수사

遺書사건

검찰 내용 조작 가명명 姜씨등 강제연행 검토

가명사용 김씨 방명록 공개 “遺書필체 동일” 주장

수첩들이 이력서보다
 수첩들이 이력서보다 방명록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방명록이 당시의 실정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명록에는 방명객의 성명, 직위, 소속, 방문 일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력서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그러나 방명록이 방명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방명록을 공개하면 방명객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고, 방명객이 방명록을 작성할 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작성할 수도 있다. 또한 방명록을 공개하면 방명객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고, 방명객이 방명록을 작성할 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작성할 수도 있다.

수첩들이 이력서보다
 수첩들이 이력서보다 방명록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방명록이 당시의 실정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명록에는 방명객의 성명, 직위, 소속, 방문 일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력서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그러나 방명록이 방명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방명록을 공개하면 방명객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고, 방명객이 방명록을 작성할 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작성할 수도 있다. 또한 방명록을 공개하면 방명객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고, 방명객이 방명록을 작성할 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작성할 수도 있다.

보도자료

1991. 5. 22

자료 가3-9

1. 우리는 지금까지 검찰의 악의에 찬 유서대필 조작극에 대응하여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속에서 시종일관 흔들림없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을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고 김기설 열사의 분신항거의 의미를 왜곡하고 전민련을 음해하려는 비열한 조작음모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근에 전민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강기훈씨의 옥 중편지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으며, 역시 전민련이 제시한 고 김기설 열사의 수첩에 대해서는 '원래의 수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듯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 앞에서조차 흰 것을 검은 것이라고 강변해대는 검찰의 작태는 한심하다 못해 가련하기조차 하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이 억지를 부리든 말든 그 누구보다도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근거자료를 제시하므로써 검찰의 전민련 와해공작을 분쇄해 나갈 것이다.

2. 터사랑청년학우회 창립대회의 방명록(근거자료 3)25
 터사랑청년학우회의 창립대회 방명록을 보면 '한정덕' 명의의 '자주·민주·통일의 기치 함성으로'라는 격려문이 발견된다. 여기에서 한정덕은 이 고 김기설 열사의 분신 직후, 언론에서 김기설 열사를 한정덕으로 오보를 냈을 정도로 성남지역에서는 잘 알려진 김기설 동지의 가명이다.
 그리고 이 격려문의 필적은 유서의 필체와 동일한 것이 한 눈에 확연히 드러난다. 또한 이 창립대회 방명록에 서명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 김기설 동지가 직접 쓴 것임을 증언하고 있다.

3. 고 김기설 열사의 자필 이력서(근거자료 2)
 이 이력서는 고 김기설 열사가 90년 11월경에 작성한 것이다. 이것은 이력서와 한 봉투에 들어 있었던 주민등록 등본의 교부일자로 미루어보아도 분명하다.
 고 김기설 열사는 89년 성남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교선부장으로 있을 당시 사무실을 함께 쓰는 관계로 '터사랑청년학우회'의 교선부장 김병희씨와 가깝게 지내왔다. 90년 말 김기설씨가 전민련에서 근무하기로 됨에 따라 김기설 동지는 우선 필요한 짐만 서울의 새 자취방으로 옮기고 옷가지, 책 등 짐의 일부는 김병희씨가 맡아 보관해 왔다. 김병희씨는 김기설 동지의 분신 소식을 듣고 보관중이던 짐들을 살펴던 중 책갈피에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들어 있던 이력서를 발견하고, 김기설 동지의 유서필적이 문제가 되자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5월 21일 전민련에 전달하였다.
 이 이력서의 필체는 검찰에서 고 김기설 열사의 필체로 인정한 바 있는 주민등록본실신고서의 필체와 완전히 일치한다(따라서 85년 누나에게 보낸 카드 필체와도 일치한다).
 이 사실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

25) 근거자료 3은 I 책 223쪽, 근거자료 2는 I 책 222쪽 참조.

자료 가2-14 (동아, 91년 5월 22일)

원본자료 충분해야 오차적어

원본자료 충분해야 오차적어

1991. 5. 22. 동아
 검찰이 유서대필 조작극을 부인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원본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검찰은 유서대필 조작극을 부인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원본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검찰은 유서대필 조작극을 부인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원본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검찰은 유서대필 조작극을 부인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원본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특정비용」 70% 이상이면 「동일」 판정
 유안구분뒤 현미경으로 정밀 검사

사람은 정말 다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안구분뒤 현미경으로 정밀 검사하면 유서대필 조작극을 부인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원본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검찰은 유서대필 조작극을 부인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원본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검찰은 유서대필 조작극을 부인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원본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특별취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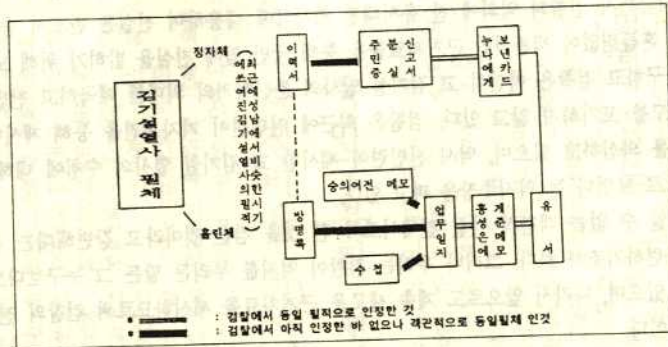
4. 고 김기설 열사의 두 가지 글씨체

이제까지 검찰이 유서가 고 김기설 열사의 글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온 가장 유력한 증거는 85년에 고 김기설 열사가 누나에게 보낸 카드의 필적이 유서의 필체와 다르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서의 글씨도, 카드의 글씨도 모두 김기설 열사의 글씨인 것이다.

이것을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최근 성남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김기설 열사가 쓴 두 가지 글씨체, 즉 정자로 쓰여진 이력서(근거자료 2)와 흘림체로 쓰여진 방명록의 격려문(근거자료 3)인 것이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검찰은 5월 17일 이후 행방불명 상태인 홍성은양의 소재를 밝혀라!

고 김기설 열사의 여자친구 홍성은양은 5월 13일 불법연행된 후 5월 17일까지 만 96시간에 걸친 검찰의 필실수사를 받았다. 이 수사는 분명한 불법이요, 강압수사이다. 홍양은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 4일 동안 행방불명 상태에 있으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우리는 홍양이 검찰에 의해 연금 내지 격리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검찰이 결백한 강기훈씨를 전민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살방조범으로 날조하기 위해, 연약한 한 여성을 불모로 삼아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면, 검찰은 이 파렴치한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앞에서와 같이 '필적 문제'를 둘러싼 검찰의 조작극이 완전히 파탄된 이제는 홍양이 강압수사에 못이겨 그 어떠한 진술을 했다 해도 강기훈씨는 무죄이며, 따라서 홍양을 장악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도 이득도 없을 것이다.

홍양은 지금 당장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야 하며, 검찰의 불법·강압수사로 인해 평범한 한 여성의 정신과 육신에 그 어떤 훼손이 있다면, 검찰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6. 검찰은 비열한 조작음모를 당장 포기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국가권력의 민주화운동 탄압과 제멋대로의 상상으로 인하여, 한 젊은이의 명예는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입었다. 강기훈 동지를 '범인'으로 날조하고 전민련을 파괴하려는 검찰의 음모는 검찰 자신을 깊은 수렁에 빠져 들게 했으며, 당장 그 음모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는 커녕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될 책임을 아울러 경고해 두는 바이다.

전민련은 진실과 도덕성의 이름으로 검찰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음해기도를 확실하게 파탄시킬 것이다.

1991. 5. 22.

전 국민족 민주운동연합

자료 1)

노태우 정권은 삼촌해
민중 대량 재취를 위한
하나 되어야 합니다.
- 김 기 설 -

누님
우리 협정이
잘기워 주시오
- 삼촌 기설 -

◆ 김기설 열사 부산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위)와 조카를 받았을때 누나에게 보낸 김씨의 필적(아래).

부처님... 김기설 열사 필적... 이... 김기설 열사 필적... 이... 김기설 열사 필적... 이...

이... 김기설 열사 필적... 이... 김기설 열사 필적... 이... 김기설 열사 필적... 이...

보고받은 삼촌 기설이에게
김기설 열사 필적... 이... 김기설 열사 필적... 이... 김기설 열사 필적... 이... 김기설 열사 필적... 이... 김기설 열사 필적... 이... 김기설 열사 필적... 이...

좌상: 검찰이 서로 다른 사람의 필체라 주장하는 김기설 동지의 두가지 글씨체 (상단은 91.5 부산 당시 쓴 것, 하단은 85년에 쓴 것으로 숙련도의 차이가 보임)
좌하: 검찰이 제시한 강기훈씨의 85년 경관진술서와 김기설씨가 홍성은 양에게 전달해 준 메모. 검찰은 이 서로 다른 필체를 모두 강기훈씨의 필체라 주장하고 있다.
우: 87.4.16 강기훈씨가 마산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 검열필도장이 보인다.

자료 2-1)

누님
 우리 혜정이
 - 활취의 주니은
 - 삼촌 기철-

<누나에게 보낸 책 표지의 글>
(85년)

(인주인)
 김 기 철 주민등록번호
 경기도 과천시 광탄면 영신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15-4411

<주민등록 분실 신고서> 89년

(인사서 4백 1호)

이 력 서	
성 명	김 기 철 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서기 1964년 11월 29일생 (만 24세)
주 소	경기도
호적관계	호주와의관계
부인의 부	호주성명
김 경 연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91.16	광탄 중학교 졸업

<김기철 동지의 자필 이력서> 90년

상기 세가지 필적은 모두 김기철 동지의 필자체다. 검찰도 상단의 두 필체는 김기철 동지의 필체라 인정할바 있다.

자료 2-2)

노태우 정권은 퇴장해야 합니다.
 민라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나 아픔만을 안겨주는
 지능의 정권도 꼭 타도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우리에게 슬픔나 아픔을
 안겨 주지 마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리앙뜨레
 행진만을 일삼아온 노태우 정권을 향해
 진면전을 선포하리 민중련의 재취를 위한
 행진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 김 기 철 -

<김기철 동지의 유서 - 검찰은 이를 강기호씨가 대필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자주. 민주. 동인의 기치를 들은~~
~~숫아다. 러사랑 청년학우리여~~
~~민중해방의 함성을 외치~~
~~(성남민청련. 신신부장 한재덕)~~

성남러사랑 청년회 창립대회 (89.10) 때 김기철 동지가 한재덕이라는 가명으로 방명록에 서명한 글. 자료 2-1의 이력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성남에서 김기철 동지가 남긴 글

(위의 두가지 모두 김기철 동지의 필적이다. 김기철 동지는 자료 2-1과 같이 정자체와 2-2 처럼 속필체 두가지를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자료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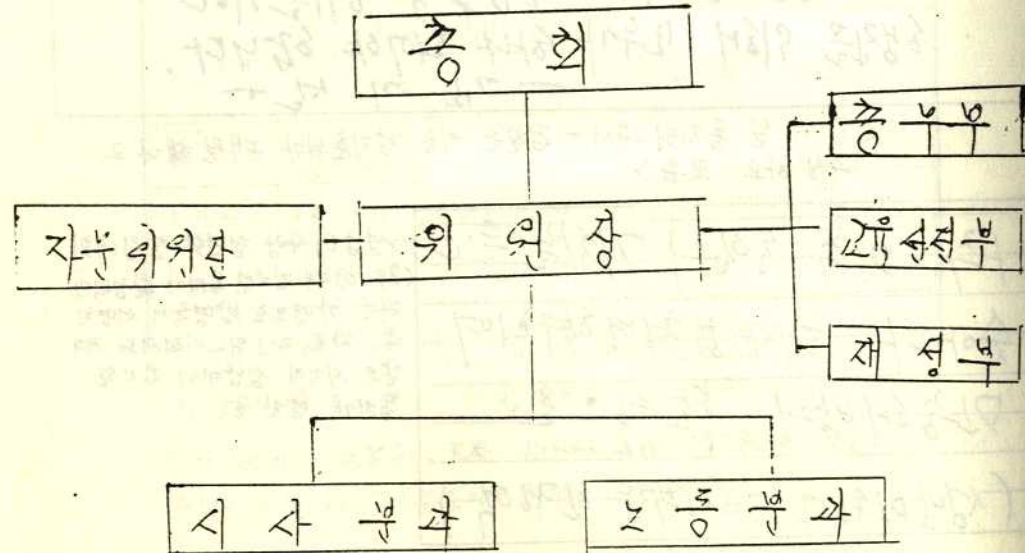
상 황 일 지

1989년 5월 26일 토요일

	담당	총무부장	위원장
	정	교선	김기철
	부	총무	

전국 및 지역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위 (2석, 10시) 노중거사위원 공대위 대표자 실무자 역사화기 2부지 위원등 4명(3명) 의호보현 위정기 2부지 (대형) 사위원
------------	---

조직 기구도



< 김기철 일사의 정지체 필체. 노은 성만형 상황인지
 다음 " 조직개편
 위 필체는 위안으로도 자료 2-1)과 유사하다. >

자료 3)

이.신영	이.신영	이.신영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신.영민	신.영민	신.영민
최.영진	최.영진	최.영진
안.영진	안.영진	안.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영진

김기철 동지의 수첩 일부(노)
 가족 연락처가 적혀 있다.

동우전문대 학생 자원
 모금활동을 위해 김기철
 동지가 승의여전 총학
 생회장에게 써준 접
 회 일정 메모 (右)

이.신영 (21)
 "주거권 재분배 문제" 관련
 2부지 2명(총 4명)
 "지키는 사람" 관련
 2부지 1명(총 2명)
 김기철 동지 관련
 2부지 1명(총 2명)
 김기철 동지 관련
 2부지 1명(총 2명)

리움이 아닙니다. 아늑하고 맑은 현실이란
 다스리기 슬프기 아프기, 살아가는
 이 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속에서 많은 걸로 이어질지도.
 < 김기철 동지의 유서 일부 >

자료 4-1)

2012년 10월 10일
 - 1950년 10월 10일 -
 1950년 10월 10일
 1950년 10월 10일

<전교조 원국지회 방명록 김명사의 혼란세로 유서 필체라 동일함> 17-1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0342) 45-5 5 3 6

자료 4-2)

(김명사가 상남민생연 활동사본 필자서 필체)

수산릉 성당 (취하)

등여-산업 노동조합(취하)

신흥 의원 (취하)

신흥등 성당 (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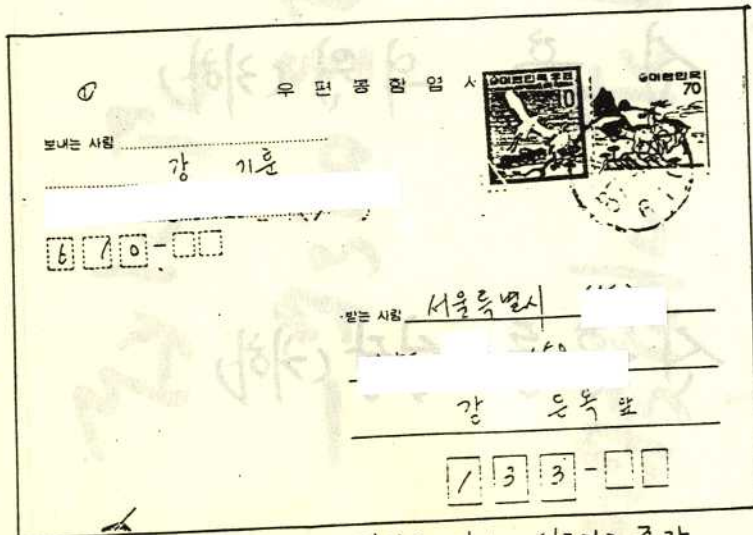
주) 태영 노동조합 (취하)

자료 4)

보고서는 김기훈 씨에게

답장이 좀 늦었으나, 보내준 편지들은 잘 받았다. 글씨나 문장력도 많이 늘고, 성격은 많이 명랑해 졌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다. 이제 단연한 봄이어서 한동안 운동장 주석이 만개했던 냇갯도 지고 앞산을 운동 뚝배기 뚝배기 전설에도 그 자취만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다. 인사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구나. 하루 1시간씩 운동도 하고 3개 교과 재능기부활동을 하면서... 좀 무리하고 ~~충족~~ 충족이 없는 생활이기는 하지만, 그 공백을 채우려 노력하면서, 하루가 너그러게 지내다 보니 ~~인생~~ 인생에는 현대 市民革命史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심도있게 다룬 책이라서 그런지 매우 많은 시사점을 받고 있었다. 특히 르베스티에르의 공산정리

<김기훈 씨의 육중편지 내용 일부>



<위 편지의 결면> 검찰은 이것도 위조라고 주장

◎ 91년 5월 23일 ◎

자료 가-1-77

서울지방검찰청

기철로부터 받은 연말카드 1부 및 편지 1부를 제출받아 원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을 의뢰하고 사본을 첨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991. 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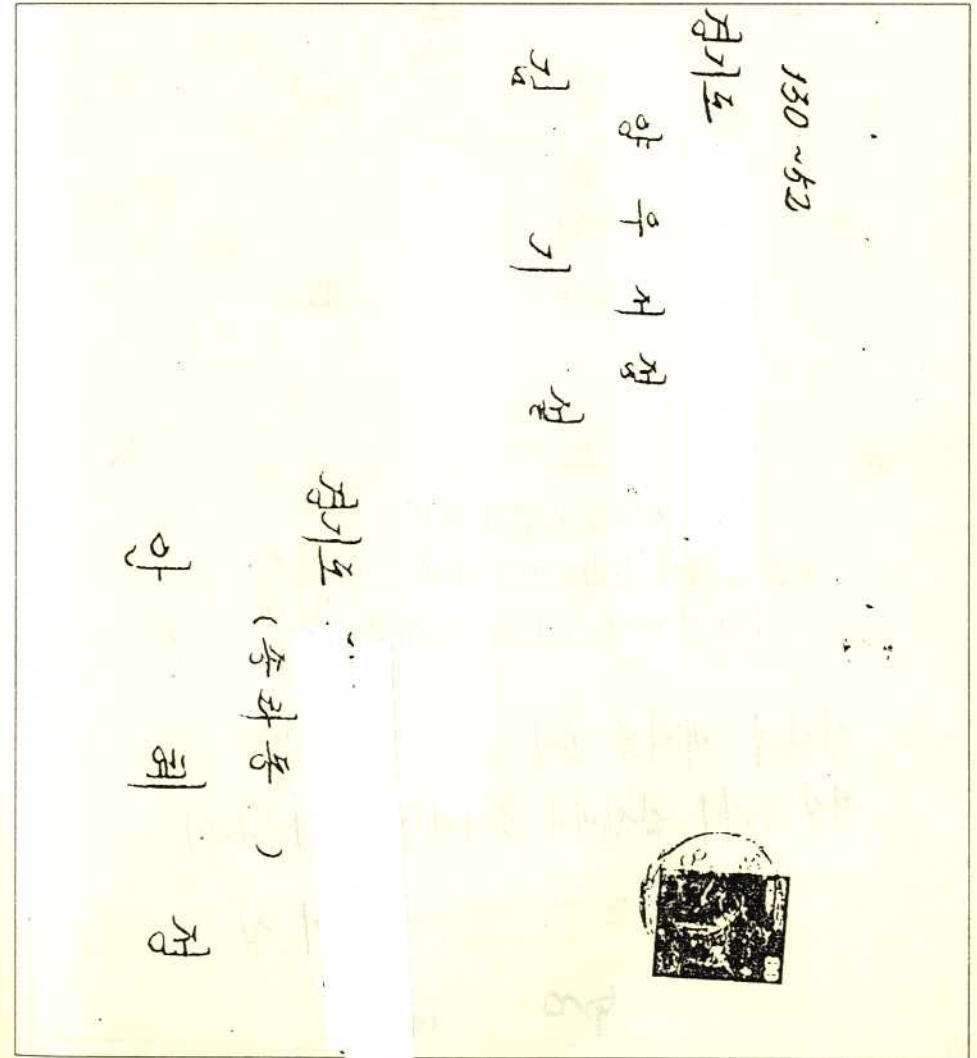
검찰주사 신인섭

수신 검사 신상규

제목 수사보고

김기철의 고향 친구인 안혜정이 금일 당청에 출석하여 김기철이 군복무중이던 1987. 11월경 김

첨부: 연말카드 사본 1부, 편지 1부. 끝.



Holiday Greetings
and Best Wishes for
the New Year

Handwritten Korean text, likely a recipient's name or address, written vertically in a cursive style.

지난해 보살피 주신
은혜에 깊이 感謝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후원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성원과 새해를 맞아
최심 승리의 함성만이 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기실

Handwritten signature or initials.

1950.5.27

정원도

해명장기서

정기도

아

해

정

정(카인) 1950.5.27

Handwritten signature or initials.

해를 보시게
 소주 한잔의 힘을 빌어 적당히 씩이진 귀족자의
 오해를 풀어야 하세
 진즉 오해 풀어야 하세. 그러나 소위적인 게이들이
 하할것 없이 자존심과 부합하여 쉽게 오해 풀수 있는
 기회를 닦아 버려 이제야 자신을 부흥할수 있는
 알뜰한 힘을 빌어 오해 풀어야 할 때 아니 버려
 적지 않는 것에 ~~충~~ 맛을 부여 해보라. 께서 오해 풀것
 같아 무슨 오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저 답답하면
 하세. 그게 먼저 자비의 주창부터 들으라 하세
 이제 시집 안 갔다. 오해는 유익함으로 들으라 하세
 어떻게. 참한 사내들이다. 가리고 지내지 모르겠거든
 시집 갔을 생각에 께라지 않는 것. 한두번 안아본
 새가 해야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부도심은 거창하진사. 모르겠거든 또 동생의 주창은
 아껴라지,
 이렇게 쉽게 안부 듣고 오해 풀수 있는 좋은 열은
 등한시 해왔던 새가 그저 답답하고 안쓰러움 뿐이네
 자네이 이곳 시집은 말 안해도 알것이고 다들
 무슨 오해를 풀어야 할지 그저 답답해구면
 옛날까 부러움은 소주 한잔에 시집을 우리말은 스스로 없이
 는하리. 그러기 위한 그라지. 구비 이리네

호사스런 욕심을 버리고 ~~정결하게 살고 싶어~~
 아무도 모르치지 않으며 다만 정결하게 살아가고 싶어
 사람을 배려하며 살고 싶어
 무슨 해라는 그 자체에 다급하기 보다는 새가 처한
 좌절을 지기며 새는 정결하게 살아가고 싶어
 자신을 죽이며 해를 부리고 새는 적당히 인연
 살고 싶지는 않네
~~이제~~ 아무 보살도 내려야 할지 없이 자신을 희생하
 오해 풀고 많은 자의들의 수수함을 풀고 싶어 하세
 진실한 인연에서 정실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세. 그저
 이것이 오해를 사지 새가 지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자기보유적인 삶의 생각하네
 하려는 ~~기회~~ 우리의 정결의 관점에서 한참 부끄럼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네 것이 새의 작은 소망 이네
 옛 사교에 비해 정결하게 살아가는 방법 자체에 큰 혼란을
 빚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결의 무한한 면허가 없지 않네
 친구 취안진진 서자
~~이~~ 이노제이가 지내지 않을 경우라면 ~~새~~ 새를
 보세라네 있지 않았었다.
 자네에게 얼마나 진실한, 부담없는, 새(새) 중의 새가
 죄였을지 하니 생각에 진실하지 못했던 옛날 새를
 후회하고 있네. (정실한 새 이질적인 새)
 과연 새 주체적 사교를 이해할수 있겠는가 하신 오해 풀이
 정결적인 새 사교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새에게 들려진
 대개 새를 유익스럽게, 이기적으로 지내지 못하게
 새네

좋은 친구 비록 ~~좋은~~ 진실한 세기 죄보사
 못했지만 형지 사의 머릿속에 은대용 이상의
 좋은 친구가 죄보사 노력했었는지 짐만 생각해 두게
 살아가 몹시 근다며. 은 첫눈같이 세상에 빛을 반사
 없는 비늘이 아니라 자기의 수레로 세상을 비출수 있는
 완벽한 능이 세빛것만 같리세.
 건강함게서 세상을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구제자 인간이
 죄를 바라며 두려움은 이만 줄이기 하겠세
 소수의 힘에 저 감절만 말세외 속은이시
 음지 없자고 탁하지 말고 구 2년만 오석이라
 성감하고 기쁘게 받아 보게세

11. 13
 기 설

등사부서입니다

☐자료 가-1-78 (수사기록 525~526)

압 수 조 서

변사자 김기철에 대한 변사사건에 관하여 검사 신
 상규는 검찰주사(보) 신인섭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
 위와 같이 1991년 5월 23일 14:00분 서울지방검찰청
 1020호 검사실에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1991. 5. 23.
 서울 지방 검 찰 청
 검 사 신 상 규
 검찰주사(보) 신 인 섭

변사사건에 필요하니 다음 6가지 필적 상호간의 동일
 성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윤석만 검사실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유서 2매.
2. 주민등록본실신고서.
3. 이력서.
4. 김기철이 누나에게 선물한 책자속의 메모 2매.
5. 김기철의 친구가 받았다는 편지 표지 및 내용 3매.
6. 김기철의 친구가 받았다는 카드 표지 및 내용. 끝.

☐자료 가-1-80 (수사기록 528~531)

압 수 경 위

변사자의 고향친구인 안혜정이 자진출석하여 변사
 자가 군 복무중이던 1987. 11.경 자신에게 보내온 연
 말카드와 편지라고 진술하며 임의 제출하므로 영장 없
 이 이를 압수하다.

서울 지방 검 찰 청

수 신 검사 박 상 도
 제 목 압수수색영장 반환

압 수 목 록

증제 번호	물 건	수 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비고
13-1	연말카드	1매	안혜정(경기)	좌 동	
2	편 지	1매	상 동	상 동	

☐자료 가-1-79 (수사기록 525~526)

기 안 용 지
 (전화 : 530-4941)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3041
 시행일자 1991. 5. 23.
 주임검사 윤 석 만 발신명의 검사장
 수 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참 조 문서감정실장
 제 목 필적 동일여부 감정요리

변사자 김기철(일명, 한정덕)에 대한 변사사
 건의 수사상 필요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991.
 5. 13 서울 성동구 화양동 2-35 소재 홍성은 가에 입
 하여 홍성은, 홍환표, 윤석인 등의 입회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는 바, 동인 등이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겠다고 하여 영장없이 압수하였기 집행에 착수
 치 않은 등 영장을 반환함을 보고합니다.

첨 부 : 압수수색영장 반환 1부. 끝.

1991. 5. 23.
 서울 지방 검 찰 청
 검찰주사보 신 광 식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자 김기철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 검 1991. 5. 23.
수신 서울형사지방법원장
발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상도
제목 압수수색영장 반환

아래 사람에게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
치 아니하였으므로 반환합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연일 1991. 5. 13.
압수수색영장 번호 196

첨부 : 1. 압수수색영장 1부 끝.

서울형사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

영장번호 196
사건번호
사건명 서강대 구내 투신변사
피의자 김기설(가명, 한정력)
생년월일 미상 (25세)
직업 전민련 사회부장 직무 대리
주거경기

압수할물건 변사자의 편지 등 자필이 남아 있는 서
류일체
수색할장소 서울
신체, 물건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 : 별지와 같음

위 피의 사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한다. 이 영장
은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
본 영장은 1991년 5월 22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
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영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상도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한다.

1991. 5. 13.
판사 김희동

집행일시 19년 월 일 시 분
압수할물건
집행불능사유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19 . . .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
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김기설(25세)이 전신에 신
나를 뿌려 불을 붙인 후 투신하여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위 사건 현
장에서 변사자의 유서 2통이 발견되었으므로 변사자
의 애인인 홍성은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자필이 남아
있는 편지 등은 압수하므로써 필적의 동일성을 확인
하기 위함.

☐자료 가-1-81 (수사기록 532~533)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검사 박경순
제목 수사보고

91. 5. 23자 당청 민원실 한국기독교교회협회의
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명의로 '김기설씨 유서
에 관련한 공개수사 협조요청 의견'의 공문이 접수되
어 이를 본 기록에 첨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991. 5. 23.
검찰주사보 임영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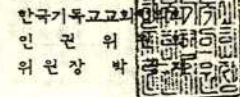
인권위발 제 91-9호
수신 : 서울지방검찰청
참조 : 강력계
제목 : 김기설씨 유서에 관련한 공개수사 협조요청의 건

1991. 5. 23.

국가발전과 민주질서수호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귀기관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난 5월 8일 서강대에서 본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고 김기설씨 유서의 친필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측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를 소환조사하
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으나 본인과 전민련측은 은폐수사를 통한 부당한 결과를 우려
하여 제3의 장소에서는 검찰측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아
니라 전민련측은 검찰이 발표한 김기설씨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씨의 조사결과도 인권위
민을 통한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회는 수사의 공개성과 정당성을 건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
이 공개수사를 제안하오니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리 —

- 일시 : 1991년 5월 24일 오전 9:00
-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회의실
(종로 5가 기독교회관 708호, 764-0203)
- 참석자 : 1. 검찰측 약간명
2. 전민련 강기훈씨의 약간명
3. 홍성은씨
4. 변호사 약간명
5. 본회 위원 약간명



자료 가-2-16 (동아, 91년 5월 23일)

金基高씨 유서 안풀리는 「代筆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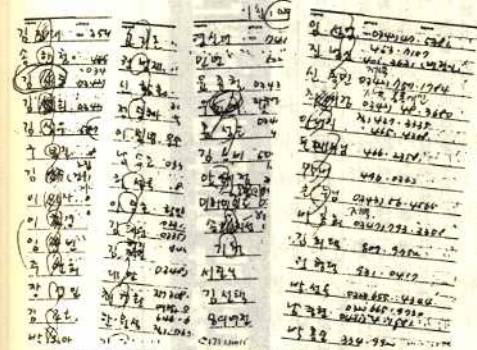
檢察全民聯 주장과 爭執

【서울 23일 특파원 특보】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법원에서 김기고(金基高)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姜基勳씨 자술서 글씨와 같다

유서는 金씨의 速筆體와 同一

【서울 23일 특파원 특보】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법원에서 김기고(金基高)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23일 특파원 특보】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법원에서 김기고(金基高)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자료 가-2-15 (동아, 91년 5월 23일)

金씨수첩筆跡 公 判明

國科捜査院 朴相民 氏 筆跡 判明 유서代筆여부 판가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상민 연구원이 유서대필여부 판가름을 위해 김기고 씨의 수첩을 검사하고 있다.

檢察-全民聯 신경 곤두

檢察 姜씨 「代筆은 폐기도」 여부 수사

【서울 23일 특파원 특보】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법원에서 김기고(金基高)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檢察과 攻防 알기로

私設검정원에서 筆跡검정

【서울 23일 특파원 특보】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법원에서 김기고(金基高)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23일 특파원 특보】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법원에서 김기고(金基高)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23일 특파원 특보】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법원에서 김기고(金基高)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씨 유서 상속권 다툼을 놓고 검찰과 전민련이 벌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자료 가-2-17 (동아, 91년 5월 23일)



김기설씨. 김기설씨의 변호인인 김기설씨. 김기설씨.

숨겨본 신결심 전달말했다

여자친구 홍씨 「유서政府전 인턴부내에

【서울 23일 동아일보】 김기설씨(41)가 23일 오전 8시 긴급임원회를 개최하고 김기설씨의 유서문제와 관련된 검찰의 일방적인 조사발표로 인해 모든 국민이 혼란속에 빠져 있음을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말렸지만 어허려 마에 뒤엎는다 김핀 유서 쓰러 진영 가약한다며 행정

【서울 23일 동아일보】 김기설씨(41)가 23일 오전 8시 긴급임원회를 개최하고 김기설씨의 유서문제와 관련된 검찰의 일방적인 조사발표로 인해 모든 국민이 혼란속에 빠져 있음을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자료 가-3-10

보도자료

1991. 5. 2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박광재)는 23일 오전 8시 긴급임원회를 개최하고 김기설씨의 유서문제와 관련된 검찰의 일방적인 조사발표로 인해 모든 국민이 혼란속에 빠져 있음을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현정권은 김기설씨 유서의 친필여부를 문제삼으며 강경대씨의 폭력살인사건으로 촉발된 현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질타를 교묘하게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김기설씨의 유서와 관련되어 얽힌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만이 국민 모두가 현시국의 본질적인 문제로 복귀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대안으로 공개수사를 제안하고 23일 오전 9시에 공개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지검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을 검찰측이 거부할 경우 본회는 독자적으로 조사단을 조직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료 가-3-11

성명서

현정권에 의한 강경대군의 폭력살인 이후 잇따르는 분신사건은 국민 모두를 슬픔과 충격속에 몰아넣고 있다.

더욱이 죽음 앞에서 결허한 자세로 시국을 수습하여야 할 현정권이 김기설씨의 분신사건을 가지고 유서대필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본회는 김기설씨의 유서사건을 수사하고 발표하는 검찰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음을 직시하여, 이의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 김기설씨의 분신 직후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분신배후세력이 존재하는양 언론조작을 하였다. 또한 분신현장에 신나통, 라이터 등이 없었다고 법석을 떨더니 급기야는 유서대필 내지 분신교사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강경대군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으로 치솟기 시작한 현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삭히기 위한 고도화된 슬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검찰은 필적감정이라는 과학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사건을 확대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박종철 고문살인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시국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일부 언론이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소위 유서대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고난을 무릅쓴 주체적인 결단으로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여 온 김기설씨가 타인의 사주에 의하여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불살랐다고 믿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3. 검찰이 밀실수사를 통하여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인상을 씻을 수 없다. 김기설씨의 친구로 알려진 홍성은양의 수사와 발표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는 현재 홍양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협박,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전민련이 제시한 증거품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무시하거나 변조되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강기훈씨를 유서 작성자로 단정하여 범인인양 발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수사권의 남용이다.

젊은 학생을 쇠파이프로 무참히 죽여놓고도 다시금 경찰의 폭력적 시위진압으로 인하여 광주와 제주에서 시민이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 우리는 다시 서 있다.

죽은이의 원혼을 위로하지 못할 망정 그 순수한 뜻을 왜곡하고 민족민주세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훼손을 가하고자 하는 이번 김기설씨 유서사건은 명백하게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 우리는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을 매듭짓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1991년 5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 91년 5월 24일 ◎

□자료 가-1-82 (수사기록 534)

발신명의 검사장

제목 문서절취선 일치여부

기안용지

(전화:)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에 필요하니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전민련 수첩의 형상과 관련하여, 수첩에서 떨어져 있는 전화번호 기입 서면 3매의 절취선과 위 수첩에 남아 있는 절취선 부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윤석만 검사실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3052

시행일자 1991. 5. 24

주임검사 윤석만

수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참조 문서감정실장

자료 가2-18 (동아, 91년 5월 24일)

아을보

1991년 5월 24일 金曜日

“姜씨-洪씨 모두 참석 筆跡 공개 감정토록”

전민련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姜씨-洪씨 모두 참석, 筆跡 공개 감정토록”을 주제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민련은 “대필논쟁에서 검찰 주장의 허구성이 밝혀지고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이 의문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그동안 검찰이 다르다고 주장해온 고 김기설씨의 정자체와 흘림체의 글씨가 동일인의 필적임이 그동안 수검되고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되었고, 이제 유서가 김기설씨 본인의 필적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명명백백하게 되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홍양의 불법구금을 통해 작성된 증언을 날조되고 왜곡된 주장의 근거로 삼아 왔으나 필적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이 김기설씨 본인의 유서임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고, 따라서 불법구금 상태의 홍양의 증언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은 궁지에 몰리자 이미 확인되고 발표된 사항-서강대 옥상 출입문과 분신 전날의 슬자리 참석자 수 등을 다시 우려먹으려 하고 심지어 사전구속영장 없이도 강제연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이성을 상실한 망발을 서슴지 않으나, 이는 수세에 몰린 검찰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檢察 2件 감정의뢰

송씨인화장면지 수첩 필적조사 첫어질것

전민련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姜씨-洪씨 모두 참석, 筆跡 공개 감정토록”을 주제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민련은 “대필논쟁에서 검찰 주장의 허구성이 밝혀지고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이 의문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그동안 검찰이 다르다고 주장해온 고 김기설씨의 정자체와 흘림체의 글씨가 동일인의 필적임이 그동안 수검되고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되었고, 이제 유서가 김기설씨 본인의 필적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명명백백하게 되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홍양의 불법구금을 통해 작성된 증언을 날조되고 왜곡된 주장의 근거로 삼아 왔으나 필적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이 김기설씨 본인의 유서임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고, 따라서 불법구금 상태의 홍양의 증언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은 궁지에 몰리자 이미 확인되고 발표된 사항-서강대 옥상 출입문과 분신 전날의 슬자리 참석자 수 등을 다시 우려먹으려 하고 심지어 사전구속영장 없이도 강제연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이성을 상실한 망발을 서슴지 않으나, 이는 수세에 몰린 검찰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전민련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姜씨-洪씨 모두 참석, 筆跡 공개 감정토록”을 주제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민련은 “대필논쟁에서 검찰 주장의 허구성이 밝혀지고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이 의문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그동안 검찰이 다르다고 주장해온 고 김기설씨의 정자체와 흘림체의 글씨가 동일인의 필적임이 그동안 수검되고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되었고, 이제 유서가 김기설씨 본인의 필적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명명백백하게 되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홍양의 불법구금을 통해 작성된 증언을 날조되고 왜곡된 주장의 근거로 삼아 왔으나 필적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이 김기설씨 본인의 유서임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고, 따라서 불법구금 상태의 홍양의 증언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은 궁지에 몰리자 이미 확인되고 발표된 사항-서강대 옥상 출입문과 분신 전날의 슬자리 참석자 수 등을 다시 우려먹으려 하고 심지어 사전구속영장 없이도 강제연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이성을 상실한 망발을 서슴지 않으나, 이는 수세에 몰린 검찰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전민련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姜씨-洪씨 모두 참석, 筆跡 공개 감정토록”을 주제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민련은 “대필논쟁에서 검찰 주장의 허구성이 밝혀지고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이 의문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그동안 검찰이 다르다고 주장해온 고 김기설씨의 정자체와 흘림체의 글씨가 동일인의 필적임이 그동안 수검되고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되었고, 이제 유서가 김기설씨 본인의 필적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명명백백하게 되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홍양의 불법구금을 통해 작성된 증언을 날조되고 왜곡된 주장의 근거로 삼아 왔으나 필적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이 김기설씨 본인의 유서임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고, 따라서 불법구금 상태의 홍양의 증언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은 궁지에 몰리자 이미 확인되고 발표된 사항-서강대 옥상 출입문과 분신 전날의 슬자리 참석자 수 등을 다시 우려먹으려 하고 심지어 사전구속영장 없이도 강제연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이성을 상실한 망발을 서슴지 않으나, 이는 수세에 몰린 검찰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檢察-全民聯 주장 객관성 없어

在野법조계 제3감정기관 의뢰를

전민련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姜씨-洪씨 모두 참석, 筆跡 공개 감정토록”을 주제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민련은 “대필논쟁에서 검찰 주장의 허구성이 밝혀지고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이 의문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그동안 검찰이 다르다고 주장해온 고 김기설씨의 정자체와 흘림체의 글씨가 동일인의 필적임이 그동안 수검되고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되었고, 이제 유서가 김기설씨 본인의 필적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명명백백하게 되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홍양의 불법구금을 통해 작성된 증언을 날조되고 왜곡된 주장의 근거로 삼아 왔으나 필적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이 김기설씨 본인의 유서임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고, 따라서 불법구금 상태의 홍양의 증언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은 궁지에 몰리자 이미 확인되고 발표된 사항-서강대 옥상 출입문과 분신 전날의 슬자리 참석자 수 등을 다시 우려먹으려 하고 심지어 사전구속영장 없이도 강제연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이성을 상실한 망발을 서슴지 않으나, 이는 수세에 몰린 검찰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전민련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姜씨-洪씨 모두 참석, 筆跡 공개 감정토록”을 주제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민련은 “대필논쟁에서 검찰 주장의 허구성이 밝혀지고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이 의문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그동안 검찰이 다르다고 주장해온 고 김기설씨의 정자체와 흘림체의 글씨가 동일인의 필적임이 그동안 수검되고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되었고, 이제 유서가 김기설씨 본인의 필적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명명백백하게 되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홍양의 불법구금을 통해 작성된 증언을 날조되고 왜곡된 주장의 근거로 삼아 왔으나 필적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이 김기설씨 본인의 유서임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고, 따라서 불법구금 상태의 홍양의 증언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은 궁지에 몰리자 이미 확인되고 발표된 사항-서강대 옥상 출입문과 분신 전날의 슬자리 참석자 수 등을 다시 우려먹으려 하고 심지어 사전구속영장 없이도 강제연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이성을 상실한 망발을 서슴지 않으나, 이는 수세에 몰린 검찰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자료 가3-12

전민련 기자회견문

헌정권은 고 김기설 동지의 죽음에 대한 더 이상의 날조조작을 중단하고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라

- 이른바 대필논쟁에서 검찰 주장의 허구성이 밝혀지고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이 의문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 그동안 검찰이 다르다고 주장해온 고 김기설씨의 정자체와 흘림체의 글씨가 동일인의 필적임이 그동안 수검되고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되었고, 이제 유서가 김기설씨 본인의 필적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명명백백하게 되었다.
 -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홍양의 불법구금을 통해 작성된 증언을 날조되고 왜곡된 주장의 근거로 삼아 왔으나 필적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이 김기설씨 본인의 유서임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고, 따라서 불법구금 상태의 홍양의 증언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 검찰은 궁지에 몰리자 이미 확인되고 발표된 사항-서강대 옥상 출입문과 분신 전날의 슬자리 참석자 수 등을 다시 우려먹으려 하고 심지어 사전구속영장 없이도 강제연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이성을 상실한 망발을 서슴지 않으나, 이는 수세에 몰린 검찰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 우리는 국민을 혼란시키고 현 난국의 본질적 문제를 희석화시키는 무익한 논쟁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미 발표된 것 외에도 수많은 자료들이 입수되고 있으나 더 이상 공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단지 최종적 절차로서 이 대필논쟁을 마무리짓기 위해 이미 제한한 바 있는 다음의 사항을 검찰이 즉각 수락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첫째, 필적의 대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동안의 자료들을 중립적이고 복수의 감정기관에서 전민련측과 검찰측이 아닌 중립적인 조사단의 책임하에 공개적으로 감정할 것을 요구한다.
 - 둘째, 강기훈씨와 홍양을 비롯한 김씨의 주변인물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개적인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이런 의미에서 어제(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
- 대필논쟁의 과정에서 누가 진실의 편에 섰고 누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가가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왜곡된 주장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민주화 열기를 희석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과거 이러한 유의 조작사건이 유아무야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 사태를 주도한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18일 모 일보의 특종 이후 객관적 사실규명과 근거없이 검찰측 발표를 인용하여 사태의 부당한 전개를 방조해온 언론의 심각한 자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4. 우리는 검찰측의 부당한 유서시비가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개혁, 그리고 그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노태우정권의 퇴진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희석시키고, 성장한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의 계기로 삼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우리는 말도 안되는 이러한 시비에 불가피하게 진상규명이라는 차원에서 대응해 왔지만 이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검찰의 의도대로 지리한 논쟁으로 몰고 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강경대군 타살 이후 모아진 국민적 요구이며 시국의 본질적 문제인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범국민적인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 전혀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기만적이고 오만한 내각사퇴로는 현시국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의 난국을 이끌어온 서동권 안기부장, 정구영 검찰총장 등 공안통치의 핵심을 즉각 파면하고, 나아가 노태우씨의 퇴진을 통해 현 난국의 수습과 민주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해야 한다.
 - 안기부의 개입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는 박창수 한진 노조위원장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제2의 강경대 사건인 광주 권창수씨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에 책임을 묻는 등 공안통치의 실질적인 종식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생색내기에 급급하여 수십명의 양심수만을 석방하는 노정권의 소위 특사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1,300여명 양심수의 즉각 석방과 악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1991. 5. 24.

전 국민족 민주운동연합

보도자료

1. 입수경위 - 성남지역 민주인사단체대표자 연석회의 사무차장 이창희
이번에 대필문제가 주요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는 정덕이형(김기설씨 가명)이 전민련에서 일하기 전에 성남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정덕이형과 관련된 단체에 증거자료 주사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다. 그러던 차에 당시에 성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서 활동했던 회원이 5월 23일 5시에 "성남지역 공안통치 종식 및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구국농성장"인 주민교회로 찾아와 자료를 제시했다. 본인 5월 23일 명동성당 농성장에 6시 30분경에 가져왔다.

2. 자료내역

* 업무일지 · 상황일지 (89.9.22~90.1.31까지)²⁵⁾

- (1)당시에 한정덕씨는 성남민주화운동청년 교선부장이었다.
- (2)이 업무일지 및 상황일지는 당시 위원장(정일부)과 교선부장(한정덕)이 주로 작성했다.
- (3)김기설씨가 당시 성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서 지역 연대사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역상황에 대한 일지 직접 작성.
- (4)상황일지 (9월 26일) - 공대위 대표자 실무자 연석회의
(9월 30일) - 통일염원, 전교조사수 · 반민주악법철폐를 위한 성남노동자 웅변대회
(10월 3일) - 터사랑청년학우회 창립총회 (오후 2시 경원대)
(12월 5일) - 한겨레신문 간지작업 (세상사는 이야기 강좌 III)
(1월 12일) - 인하병원 노조관계 방문
(1월 15일) - '터사랑' 여명제 개막식

* 성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제3차 총회
앞면 (교선부장 보관용 - 홀림체)
뒷면 (조직기구표 - 정자체)

3. 자료평가

- ①상황일지 및 업무일지는 89년 9월 22일에서 90년 1월 31일까지 4개월 이상에 걸쳐 구체적 활동상황을 기록한 것으로서 결코 조작할 수 없는 자료이다.
- ②성남 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서 제시한 이 업무일지를 보면 김기설씨 필체가 정자체·홀림체가 동시에 확인되고 있으며 그밖에 글씨체 속에서 싸인펜, 볼펜, 세라믹펜 등 다양한 필기도구로 쓴 글씨가 확인되고 있다.
- ③이것으로써 검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85년 카드와 유서가 모두 김기설 동지의 자필이라는 것을 더욱 확증할 수 있으며 강기훈씨의 대필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이제 더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25) 총자료집 II책 80쪽 참조.

◎ 91년 5월 25일 ◎

☐자료 가-1-83 (수사기록 534)

기 안 용 지
(전화 : 530-4941)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3245
시행일자 1991. 5. 25
주임검사 윤석만 발신명의 검사장
수 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참 조 문서감정실장
제 목 필적 동일여부 감정의뢰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에 필요하니 다음 5가지 필적 상호간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윤석만 검사실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2. 주민등록본실신고서.
3. 이력서.
4. 김기설이 누나에게 선물한 책자속의 메모 2매.
5. 김기설의 친구가 받았다는 편지 표지 및 내용 3매.
6. 김기설의 친구가 받았다는 카드 표지 및 내용. 끝.

☐자료 가-1-84 (수사기록 536~56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688-2012)

이화삼 23110-5657 1991. 5. 25.
수 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장
참 조 검사 윤석만

제 목 필적 등 감정의뢰 회보

1. 강력23110 - 013041, 013052 (91. 5. 23 - 34.) 관련입니다.
2. 위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첨 부 : 감정서 2부. 사 진 24매.
증거물 7부. 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화삼 23110-447 (698-2012) 1991. 5. 25.
수 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장
참 조 검사 윤석만
제 목 필적 등 감정의뢰 회보

1. 강력 23110- 013041, 013052 (91. 5. 23. - 34) 관련입니다.
2. 위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첨 부 : 감정서 2부.
사 진 24매.
증거물 7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991. 5. 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9 91 년 5 월 25 일

감 정 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 화 학 과
문 서 감 정 실

의뢰관서명 : 서울지방검찰청 문서감정의뢰

50

감정서

이화삼 23110호 (대 광복 23110-013041호 1991년 5월 23일)

의뢰관서명: 서울지방검찰청

1. 증거물: 가. 1, 유서 1매.
 나. 2, 주민등록본실신고서
 다. 3, 이력서
 라. 4, 김기설이 누나에게 선물한 책자속의 메모 2매.
 마. 5, 김기설의 친구가 받았다는 편지봉투 및 내용 3매.
 바. 6, 김기설의 친구가 받았다는 카드봉투 및 내용 2매.
 사. 7,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1권.
2. 감정사항: 위의 1,2,3,4,5,6,7,의 각필적 이동여부.

감정방법: 현미경, 입체현미경, 비교확대기,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등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필의 구성과 배자(配字)의 형태, 필세(筆勢), 필순(筆順)에 의한 운필(運筆)순서, 조형미, 필의 방향, 각도, 간격, 운필(運筆)상태를 검사하고 기필(起筆)부분과 종필(終筆)처리부분,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필의 특성, 속련과 미속련 차이, 자음(子音)과 모음(母音)의 특징, 개인의 잠재습성등을 주시 검사 하였음.

등사문서입니다

5/23

4. 감정소견: 위의 방법에 의해 종합정밀검사에서 (1) 유서는 싸인펜에 의하여 속필로 기재된 필적이며, (7)수첩에 기재된 필적은 좁은란에 기재된 필적이고 그의 (2)주민등록본실신고서, (3)이력서, (4)책자속 메모, (5), (6)편지봉투 및 내용등의 필적은 전체적으로 정서로 기재된 필적으로서 (2), (3), (4), (5), (6)의 필적은 필의 구성과 배자의 형태, 기필부분과 운필각도, 자음과 모음의 구성 및 기재습성등에서 공통적인 특징상 차이가 다수 관찰되며, 이 모든 필적과 유서 및 수첩과는 기재된 형태가 정서로 기재된 형태와 싸인펜에 의하여 속필로 기재된 형태의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나탁날수 있는 변화상태를 알수없기 때문에 대조자료로서, 부적합하지만 현재에 나탁난 상태에 있어 대조한바, 일부 받침과 연결부분, 자음의 구성에서 유사성은 있으나, 첨부된 사진 제 1-10 호의 녹선표시와 같이 필의 구성과 운필각도,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운필형태 등의 연결부분등에서는 다수의 차이점이 관찰됨.

부 사진 21 매 참조.

감정결과: 이상의 감정소견과 같이 (2) 주민등록본실신고서, (3)이력서, (4)책자속 메모, (5), (6)편지봉투 및 내용 필적은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되며, 위의 (2), (3), (4), (5), (6), 필적과 (1)유서 및 (7)수첩에 기재된 필적과는 정서와 속필상의 차이상는 알수없으나, 현재상태에서는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됨.

1991년 5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원 김익니 (인)


4. 감정소견 : 위의 방법에 의한 종합정밀검사에서 (1) 유서는 싸인펜에 의하여 속필로 기재된 필적이며, (7)수첩에 기재된 필적은 좁은란에 기재된 필적이고 그외 (2)주민등록본실신고서, (3)이력서, (4)책자속 메모, (5), (6)편지봉투및 내용등의 필적은 전체적으로 정서로 기재된 필적으로서, (2), (3), (4), (5), (6)의 필적은 필의구성과 배자의 형태, 기필부분과 온필각도, 자음과 모음의구성및 기재습성등에서 공통적인 특징상사점이 다수 관찰되며, 이모든 필적과 유서및 수첩과는 기재된 형태가 정서로 기재된 형태와 싸인펜에 의하여 속필로 기재된 형태의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나탁날수 있는 변화상태를 알수없기 때문에 대조자료로서, 부적합하지만 현재에 나탁난 상태에서 대조한바, 일부 받침과 연결부분, 자음의 구성에서 유사성은 있으나, 첨부된 사진 제 1 - 10 호의 녹선표시와 같이 필의 구성과 온필각도,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온필형태 모음의 연결부분등에서는 다수의 차이점이 관찰됨. [이 하 여 백]

첨 부 사진 21 매참조. [이 하 여 백]

감정결과 : 이상의 감정소견과 같이 (2) 주민등록본실신고서, (3)이력서, (4)책자의 메모, (5), (6)편지봉투및 내용 필적은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되며, 위의 (2), (3), (4), (5), (6), 필적과 (1)유서및 (7)수첩에 기재된 필적과는 정서와 속필상의 화상태는 알수없으나, 현재상태에서는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됨. [이 하 여 백]

1991년 5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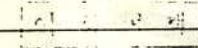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김경민

감정서

이 화 제 23110- 호 (대강력 23110-015305호 1989년 5월 24일)
의뢰관서명 서울지방 검찰청

1. 증거물 가. 전민련에서 김기설의것이라고 제출한수첩 1부.



2. 감정사항 수첩에서 찢어져있는 전화번호 기입부분 3매의 절취선과 외수첩에 남아있는 부분의 일치여부.

3. 시험 연미경, 입체연미경,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 적외선현미경등에 의한 관찰시험에서 수첩에서 찢어져 있는 전화번호 부분의 절취선과 수첩에 남아있는 절취선 부분은 첨부된 사진에서 나탁나 있는것과 같이 수첩에 잔류하고 있는 3매의 잔류부분과 일치되는 부분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각각 차이점이 관찰됨.

* 위의 전화번호 기입 부분 3매의 여러곳에 연필로 기재된 문자일 에 강한 필압형태가 나탁나 있으나 그필압 아래에 나탁나 있어야 할 필압흔적은 관찰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첨 부 사진 4매참조.

4. 감정결과 이상의 감정소견과 같이 수첩에 찢어져있는 전화번호 기입부분 3매와 수첩에 남아있는 잔류부분의 절취선은 일치되지 아니함.

5. 비 고 증거물은 전량 반환함.

서기 1989년 5월 25일

감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90

이화학과

김 경 민



민중을 위해

관심 갖어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김기설의 친구가 받았다는 편지내용 필적 부분 확대사진.

線線 표시는 상하 필적과 동질성이 부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비

살아가는

살아가기를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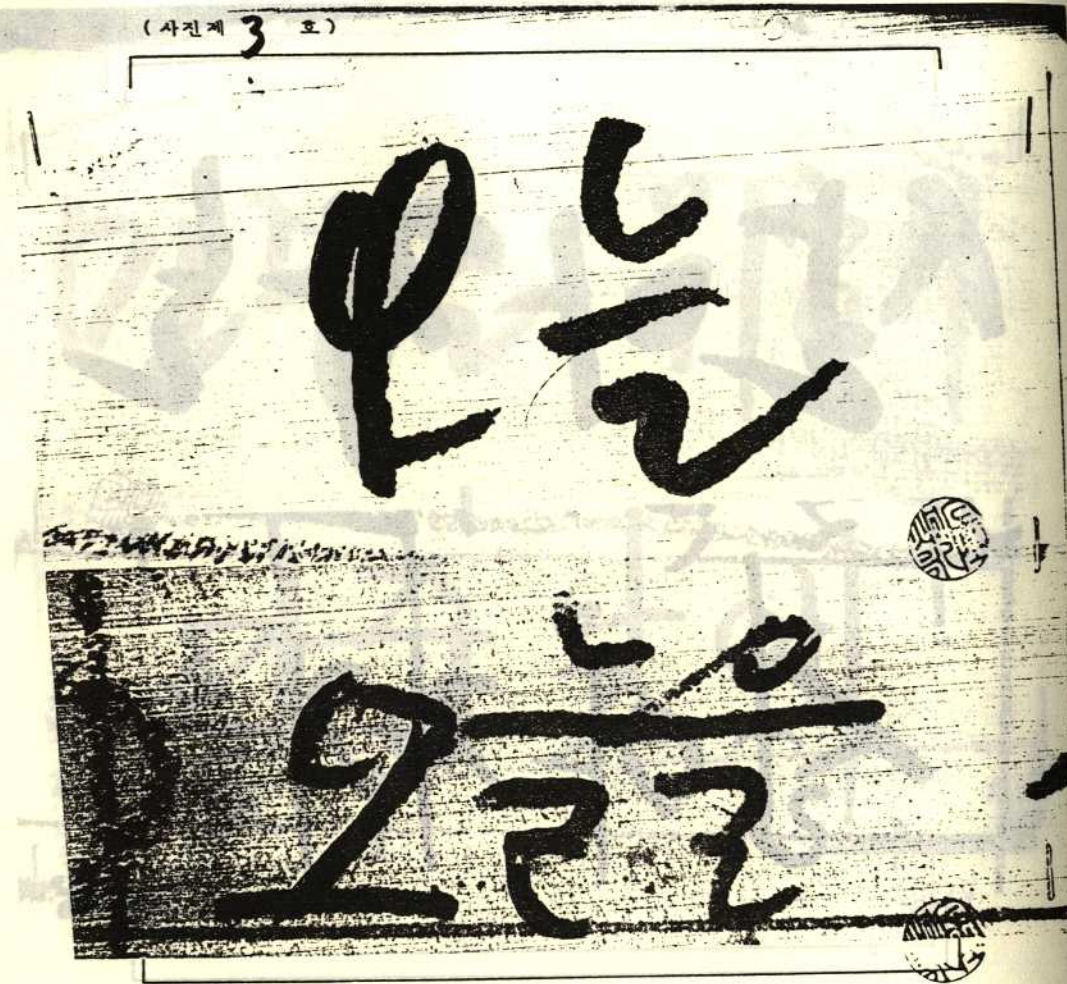
하: 김기설의 친구가 받았다는 편지내용 필적 부분 확대사진.

線線 표시는 상하 필적과 동질성이 부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비

(사진제 3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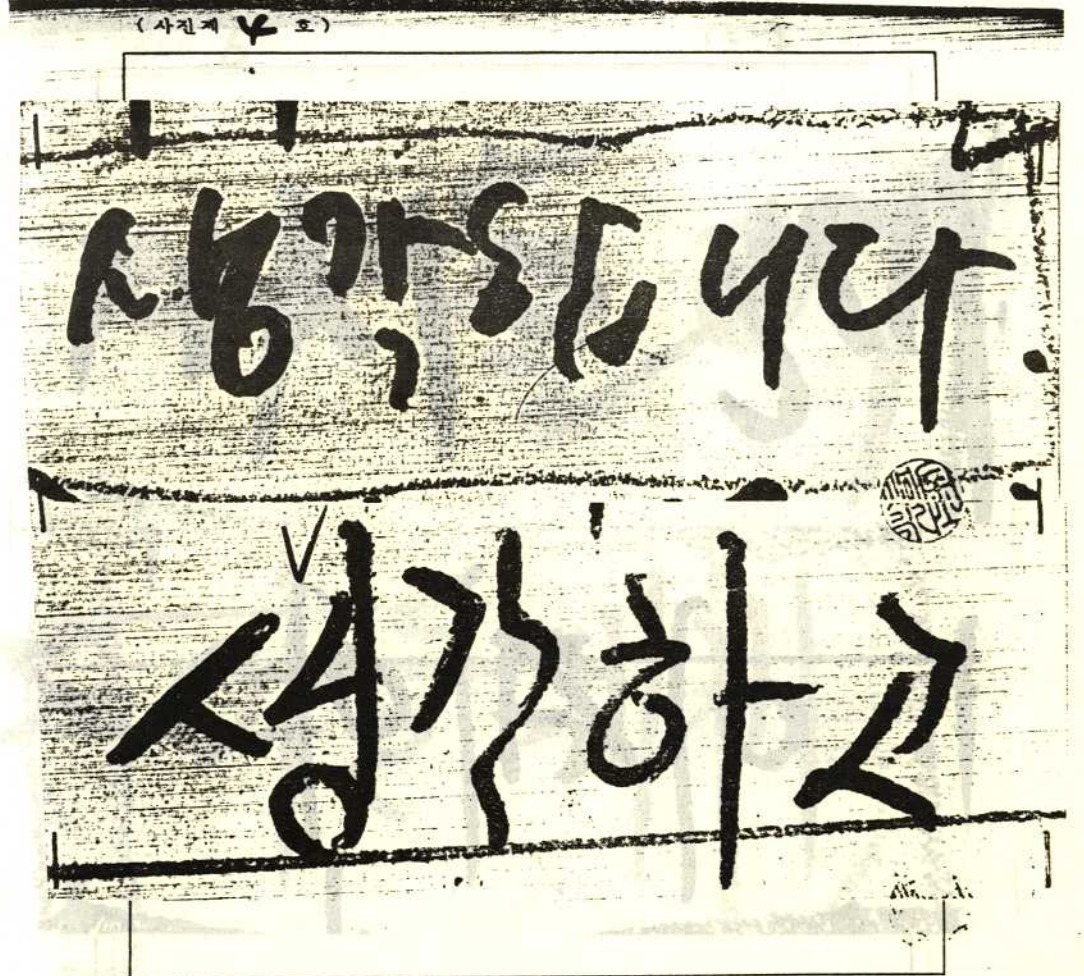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김기설의 친구가 받았다는 편지내용 필적 부분 확대사진.

線線표지는 상하필적과 특필상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제 4 호)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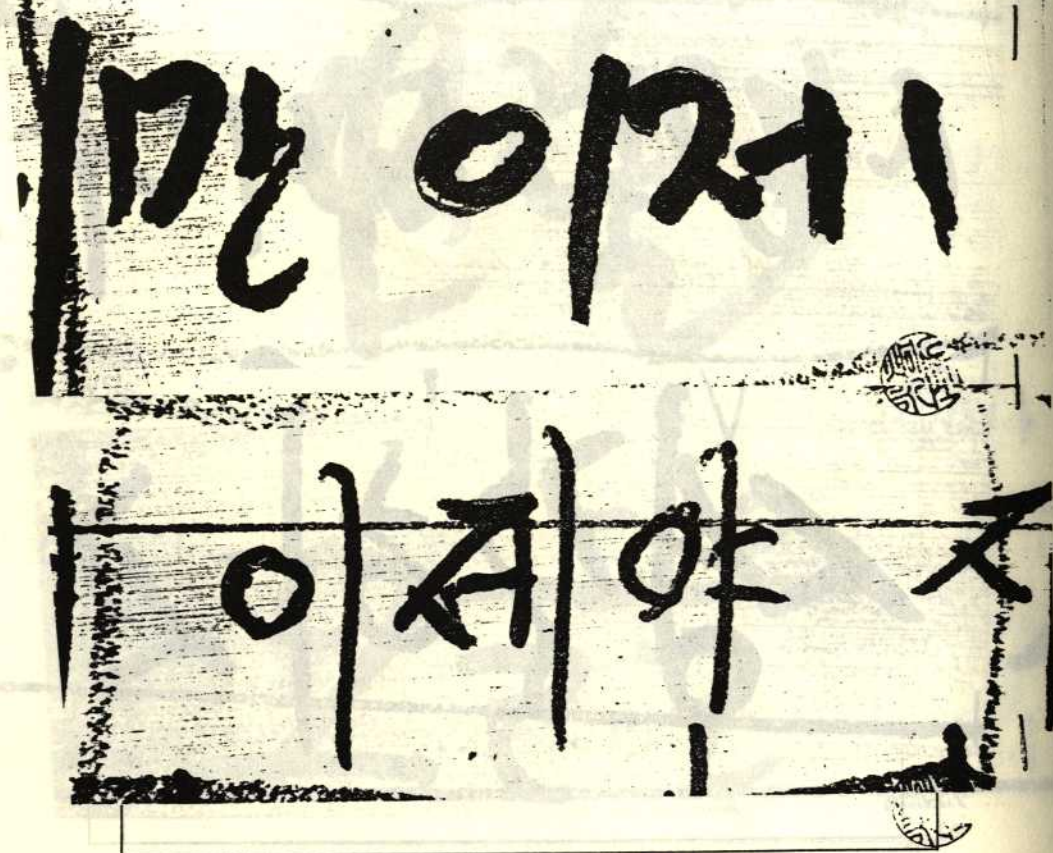
하: 김기설의 친구가 받았다는 편지내용 필적 부분 확대사진.

線線표지는 상하필적과 특필상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나나

(사진 제 5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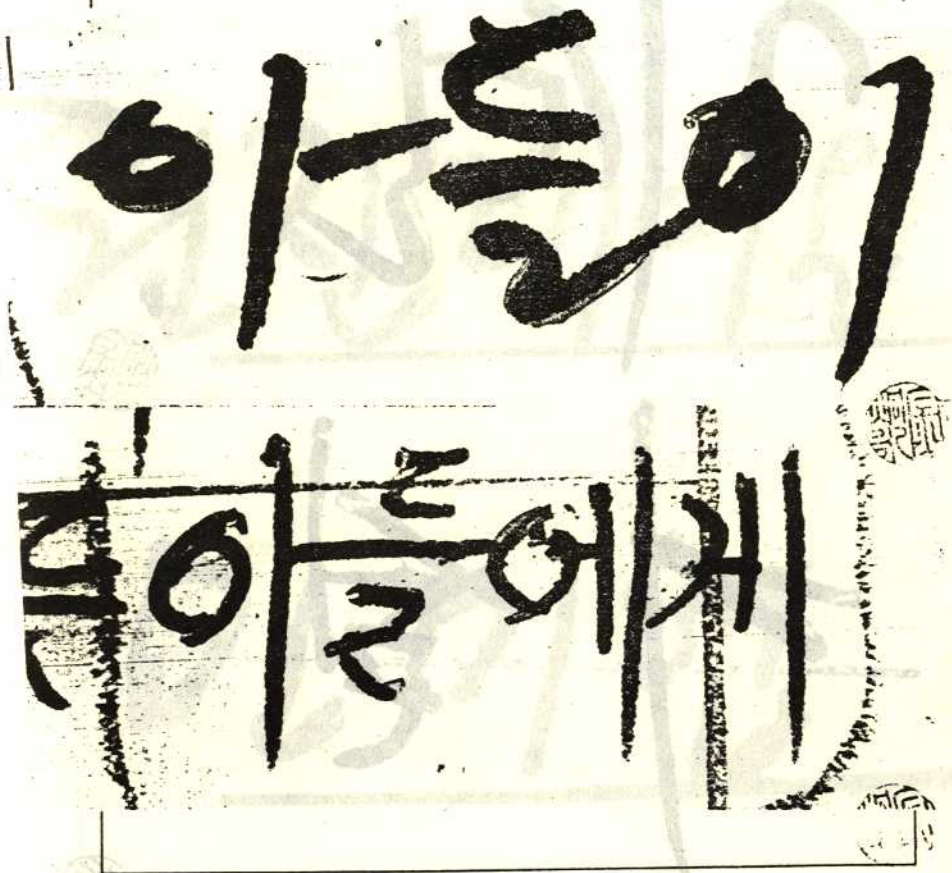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김기설의 친구가 받았다는 편지내용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 제 6 호)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김기설의 친구가 받았다는 편지내용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제 7 호)

기실
가실



상: 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하: 김기실의 친구가 받았다는 편지내용 필적 부분 확대사진.

상하 필적과 두 장 상하 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41

(사진제 8 호)

원진 레이도
민이행



전민련에서 김기실것이라고 제출한 수첩필적 부분 확대사진.

필적 2, 3, 4, 5, 6 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42

(사진계 y 호)

민변

은공처

전민련에서 김기설것이라고 제출한 수첩필적 부분 확대사진.

2.3.4.5.6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40

(사진계 10 호)

김희택

김희택

전민련에서 김기설것이라고 제출한 수첩필적 부분 확대사진.

2.3.4.5.6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입니다

(사진제 11호)

이름: (일부인)

김기철	주민등록 번호	85112) ~12334
-----	------------	------------------

경기도

경기도 남지

한양대 도서관

주민등록본실신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사문서입니다

(사진제 12호)

김기철

기방과 함께 필적

주민등록본실신고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사문서입니다

(사진계 13 호)

성명	김기설인	6511
생년월일	서기 1965년 11월	
경기로 안양시		
수와의관계	본인의 부	

김기설의 이력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사본서입니다

(사진계 14 호)

0 1 0) - 0 0

서울 수도 전기 공업고 "중배전과"

등교 자퇴

육군 제 9136 부대 입대

육군 제 9136 부대 퇴대

모르스트 라이프 입사

김기설의 이력서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사본서입니다

(사진계 소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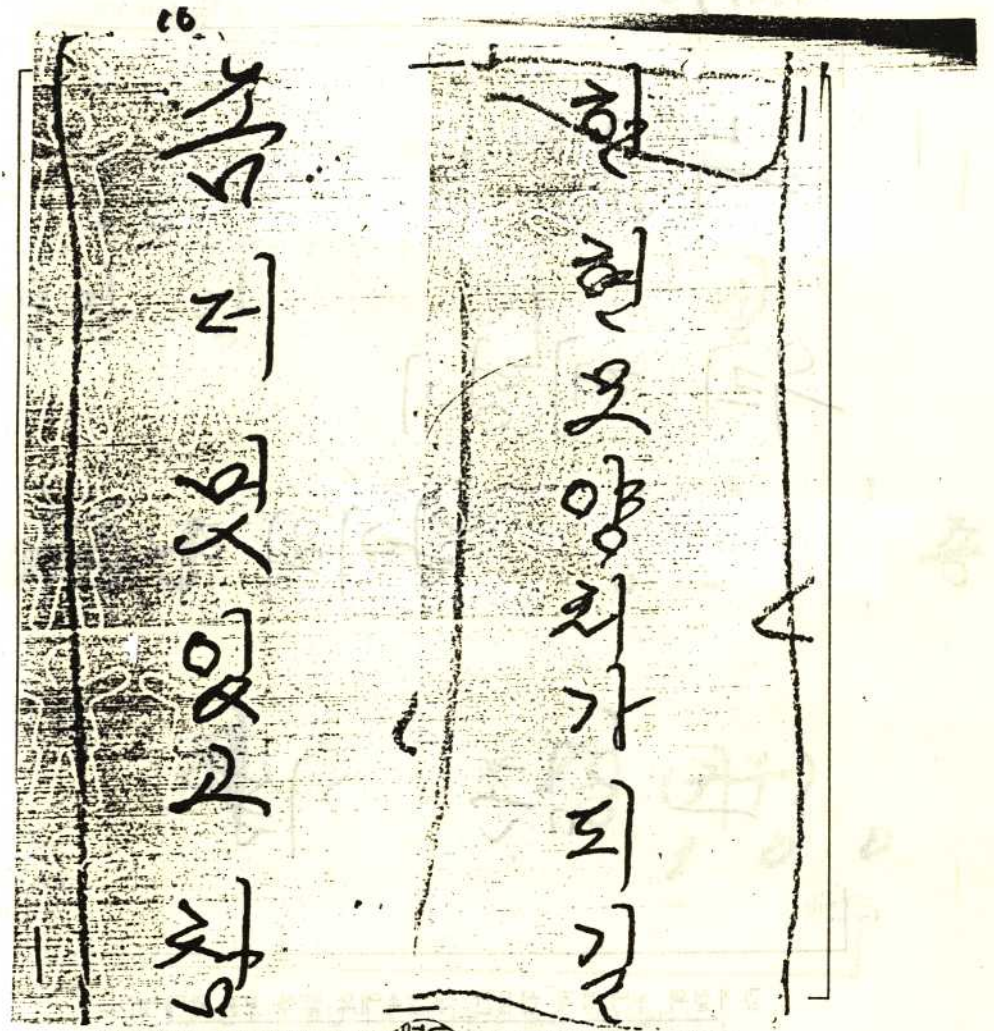
시 권 인사기

!급)	김	기	설	한	본	金	基
경	기	도	과				형
경	기						성

김기설의 사원인사기록카드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기증서인사기
44 LDb



김기설의 누나에게 선물한 책자숨메모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 제 17 호)

누님
 우리 책장이
 잘키워 주시요
 - 삼촌 기설 -

김기설의 누나에게 선물한 책자속메모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진 제 18 호)

누님
 병장 김 기 설
 아주군
 해 정(카우)

김기설 친구가 받았다는 편지표지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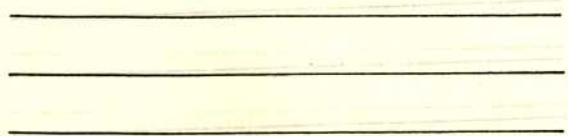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실
 1-1-10

(사진제 11호)

130~52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
 양 우 서 정
 김 기 설

김기설의 친구가 받았다는 카드표지 필적 부분 확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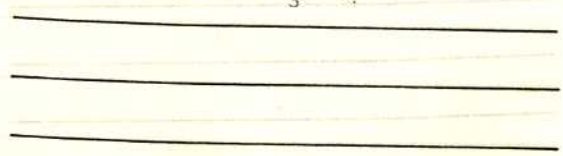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입니다

(사진제 20호)

혜 경 보 시 게
 주 학 자 의 함 을 벌 어
 조 식 을 취 하 까 하 씨
 주 조 식 취 하 야 하 는 데
 이 가 가 시 는 가 조 식 이 가

김기설의 친구가 받았다는 편지내용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입니다

(사진제기 호)

호사스런 욕심을 버리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며 다만
 사랑을 베풀며 살고 싶네
 꾸새 한라는 그 자리에 단
 깎뜨를 지키며 차운 경하
 자식을 죽이며 허세를 부리고

김기실의 친구가 받았다는 편지내용 필적 부분 확대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센터

(사진제기 호)

경동 1 대
특별위원
총괄하는

구.
현과 상임

name

수첩의 절취선 부분 현미경사진.

* 절취선이 일치되지 않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센터
동사분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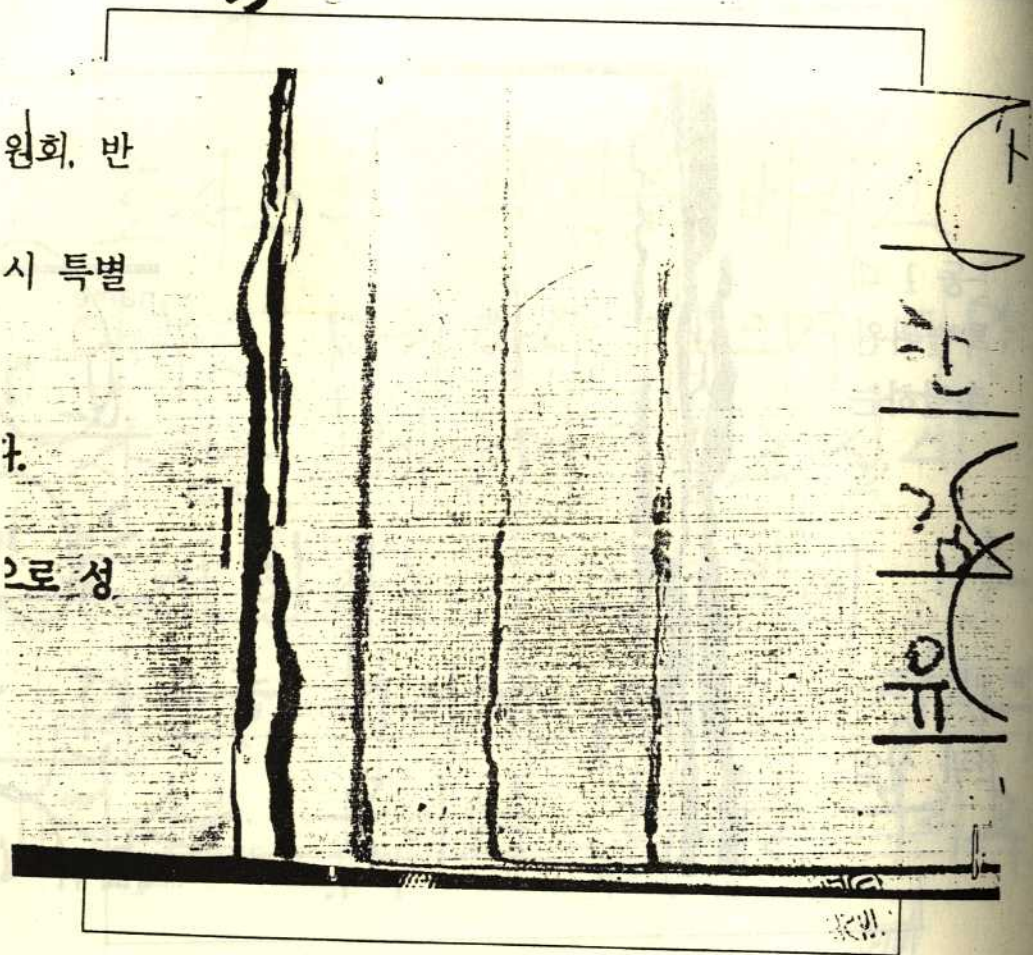
(사진제 23 호)

원회. 반

시 특별

가.

으로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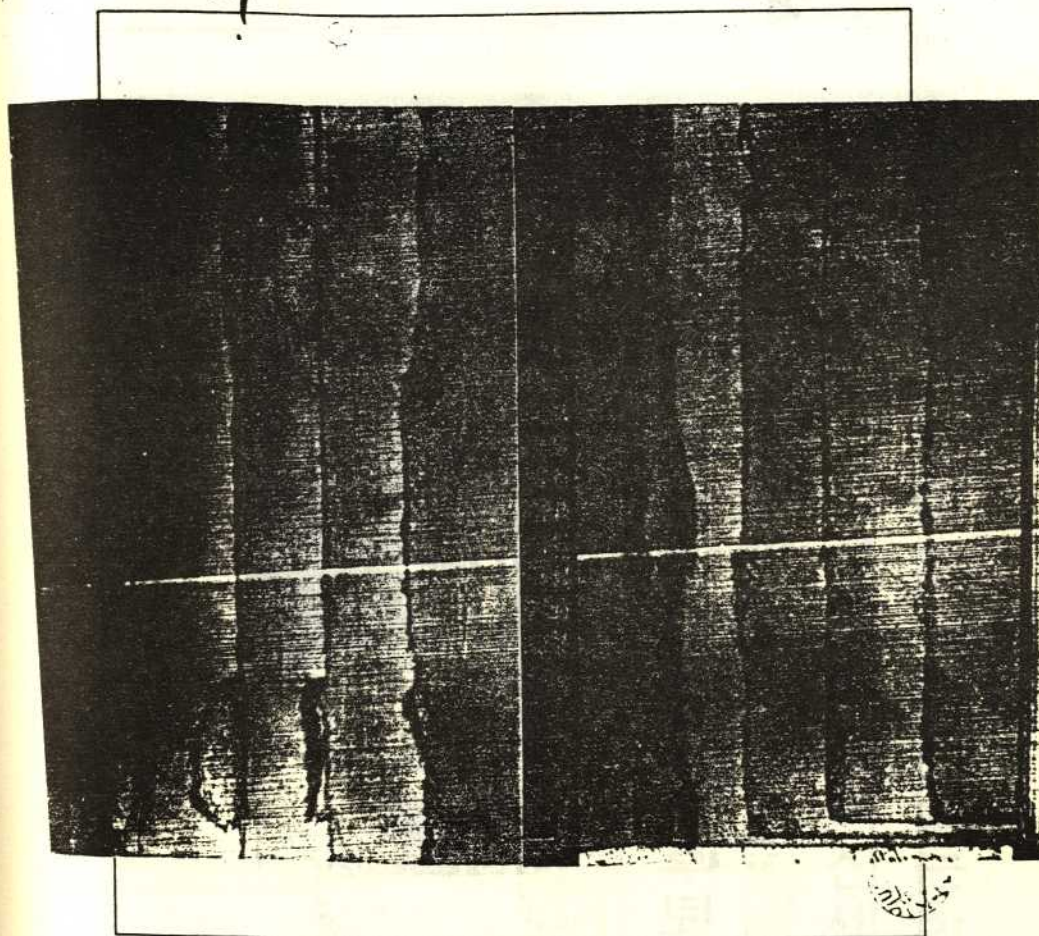


수첨의 절취선 부분 현미경 사진.

* 절취선이 일치되지 않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입니다

(사진제 24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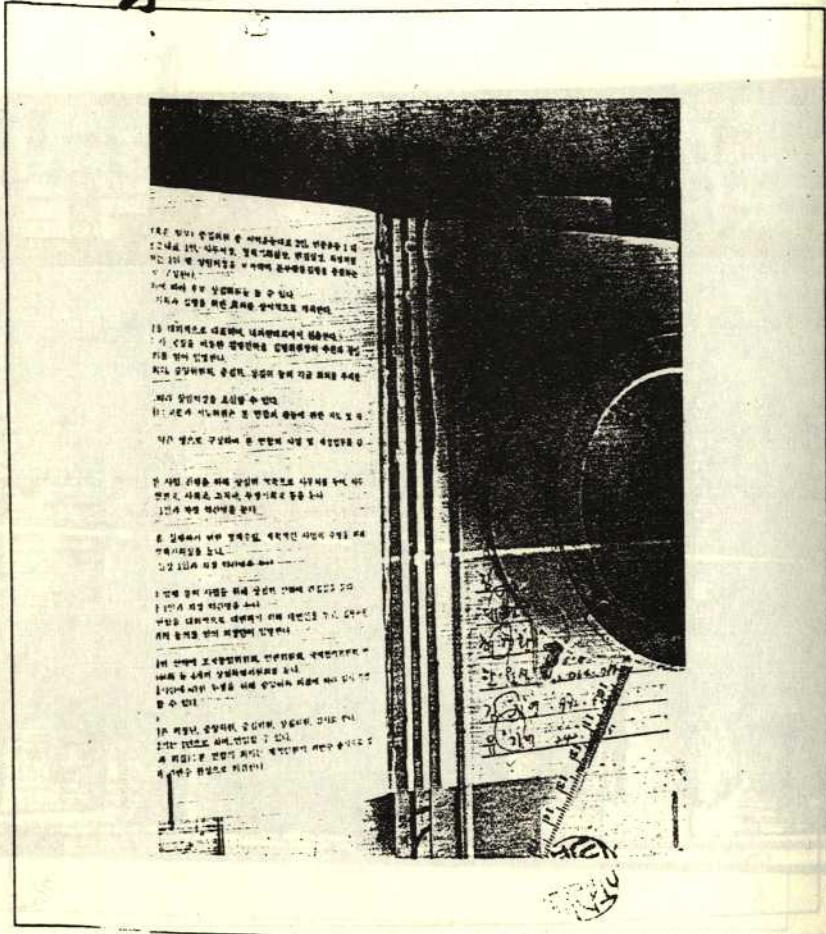


수첨의 절취선부분 현미경 사진.

* 절취선이 일치되지 않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사문서입니다

(사진제 **가** 초)



수첩의 절취선 부분 현미경사진.

* 절취선이 일치되지 않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문서입니다

자료 가-2-19 (동아, 91년 5월 25일)

The Dong-A Ilbo

金基高씨 유서 自筆 확실

1991. 5. 25

國搜 金씨수첩-遺書筆跡 동일 판단... 곧 통보

수첩 조작 증거 없는 스스로 작성 밝혀진 셈

檢察 「代筆주장」 후퇴

【서울 25일 연합뉴스】 서울지검은 김기설(87) 씨의 유서 작성자가 김 씨 자신임을 밝혀 주머니에 넣어둔 수첩의 절취선 부분이 유서와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 검찰의 「대필주장」을 후퇴시켰다.

서울지검은 25일 서울지검 형사 1부 재판부 앞에서 열린 김 씨 유서 작성자 판정 심판에서 유서와 수첩의 절취선 부분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 검찰의 「대필주장」을 후퇴시켰다. 검찰은 유서와 수첩의 절취선 부분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 유서 작성자가 김 씨 자신임을 밝혀 주머니에 넣어둔 수첩의 절취선 부분이 유서와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 검찰의 「대필주장」을 후퇴시켰다.

서울지검은 25일 서울지검 형사 1부 재판부 앞에서 열린 김 씨 유서 작성자 판정 심판에서 유서와 수첩의 절취선 부분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 검찰의 「대필주장」을 후퇴시켰다. 검찰은 유서와 수첩의 절취선 부분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 유서 작성자가 김 씨 자신임을 밝혀 주머니에 넣어둔 수첩의 절취선 부분이 유서와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 검찰의 「대필주장」을 후퇴시켰다.

서울지검은 25일 서울지검 형사 1부 재판부 앞에서 열린 김 씨 유서 작성자 판정 심판에서 유서와 수첩의 절취선 부분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 검찰의 「대필주장」을 후퇴시켰다. 검찰은 유서와 수첩의 절취선 부분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 유서 작성자가 김 씨 자신임을 밝혀 주머니에 넣어둔 수첩의 절취선 부분이 유서와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 검찰의 「대필주장」을 후퇴시켰다.

■자료 가-2-20 (동아, 91년 5월 25일)

원수... (Vertical text column on the far left, containing various news snippets and a small circular logo at the top.)

金씨본신 背後주장은 날조다

29시간 감옥노역 放逐大幸 환영

【서울 24일 동아신문】... 29시간 감옥노역 放逐大幸 환영... (Main article body text, partially obscured by the title box.)

자유스런 세상 만들기 위해 決行 全民聯측에 계획알려... 함께만류

【서울 24일 동아신문】... 全民聯측에 계획알려... 함께만류... (Continuation of the article below the sub-headline.)

강압 搜查 없이 아... (A short notice or advertisemen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자료 가-3-1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공안통치의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민주정부 수립의 일념을 잃지 않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87년 6월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쳤던 “호헌철폐·독재타도”의 함성을 잊지 않고 있는 우리는 다시금 부패정권, 재벌정권, 폭력정권, 살인정권은 이제 더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5월 4일, 9일, 19일 전국의 80여개 시군에서 수십만명의 국민들은 “해체 민주당, 타도 노태우”를 한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에 흔히 백산한 독재정권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대 열사를 최파이프로 살해한 정권이 이에 대한 은뉘를 바친 항거 전국민적인 규탄과 정권퇴진의 함성에 놀란 나머지 마치 누군가가 본신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듯이 떠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열사의 유서가 조작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적 판단마저 캄그리 뭉개버리고, 어떠한 객관적 타당성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제도언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인즉 김기설씨의 유서는 대필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대필이 아니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 즉 전민련이 조직적으로 자살을 사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을 경찰서 밀실에 가둬놓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도 이것을 폭로하자 “성까지도 혁명의 도구화하는 운동권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떠벌리던 사실을, 박종철혈사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죽여놓고도 탁하고 치나카 역하고 죽었다고 하던 저들의 가슴스런 거짓말을...

바로 4년전에 있었던 정권의 말기적 현상들을 노태우정권은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서의 필적을 들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우리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김기설씨의 글씨와 강기훈씨의 필체는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를 들먹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명확한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년 박종철혈사의 물고문사를 심장마비사로 허위진단했던 것이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였다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존중하시는 국민 여러분!

이제 더이상 우리의 형제자매, 이들 딸들이 목숨을 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 이들 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최파이프로 강경대열사를 죽인 정권, 독가스로 노동자의 생명을 끊은 정권, 안기부라는 공권력을 동원해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를 살해한 정권...

이렇듯 은국민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부패정권, 폭력정권, 살인정권 노태우정권을 갈아치우지 않고서는 이 죽음의 행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민주당 해체 노태우 퇴진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합시다. 87년에 실패한 민주정부수립의 염원을 91년 5월에는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백주에 살인을 자행하며 본신배후조작에 혈안이 된 노태우정권은 퇴진하라
날조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심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지라
부패정권, 살인정권,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1991. 5월 25일

단국대학교 민주동문회 드림

◎ 91년 5월 26일 ◎

▣자료 가-1-85 (수사기록 566~578)

진술조서

(제 3 회)

주거서울
성명홍성은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 사건에 관하여 1991. 5. 26.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흥운택가에서 임의로 전화에 계속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문 : 진술인의 전화 진술은 사실대로 인가요.

답 :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망 김기설로부터 망인이 사용하던 수첩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그 일시, 장소를 진술하시오.

답 : 1991. 5. 7.(화요일) 22:00경 신촌로타리 부근의 상호불상 카페에서 입니다.

문 : 수첩을 받게된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전화 진술한 바와 같이 김기설이 사망하기 전날 저와 만났는데 복지다방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나와서 부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김기설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상호불상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던 중 김기설이 자기에게 일이 생기면 연락해 줄 사람이 없다며 수첩을 꺼내어 전화번호 기재란 펼치고 아버지라고 써 있는 곳의 전화번호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분신을 만류하며 울고 있는 저에게 전화번호 기재란 3, 4장을 찢어내어 카페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자신에게 일이 생기면 연락해 줄 사람을 표시해 주겠다고 하면서 품에서 녹색 하이테크펜을 꺼내어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동그라미를 치다가 잘못 표시한 부분은 엑스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샤프를 꺼내어 꼭 연락해야 될 사람은 빗금을 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뜯어낸 마지막 장에 친한 친구로 연락해야 될 사람이라며 한승홍의 전화번호를 기

재하여 뜯어낸 전화번호 부분 3-4장을 저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받으니 김기설이 수첩을 뒤적거리다가 아직 쓸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수첩을 마저 저에게 주어 전화번호 기재 부분을 수첩 사이에 끼어 넣었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이 녹색 하이테크펜과 샤프 외에 다른 필기구도 가지고 있었나요.

답 : 다른 필기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본 것은 녹색 하이테크펜과 샤프뿐이었습니다.

문 : 뜯어낸 전화번호 기재란은 정확히 몇 장이었나요.

답 : 두 장이 넘는 것은 확실하나 석 장인지 두 장 인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이 진술인의 앞에서 전화번호 기재부분을 찢을 때 이미 녹색 하이테크펜으로 표시된 부분은 없었는가요.

답 : 동그라미는 제 앞에서 표시하였고, 그전에 표시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진술인의 앞에서 샤프로 기재한 것은 꼭 연락해야 될 사람이라고 빗금을 치고 한승홍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뿐인가요, 다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는가요.

답 : 다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 위 수첩이 진술이 받았을 때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는기 기억할 수 있는가요.

답 : 제가 그날 22:30경 아현 전철역에서 김기설과 헤어진 후 집에 와서 그 수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 : 그렇다면 수첩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기억나는데로 진술하시오.

답 : 그 수첩은 저도 같은 수첩이 있어 체제를 하는데 "조국은 하나다"라는 제목의 검은 표지의 수첩으로 일정을 기재하는 란이 월별로 있고 그 다음 관련된 단체의 주소와 전화번호란이 있으며 이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창립선언문과 규약, 전화번호 기재란 그리고 메모를 할 수 있는 모눈종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김기설이 저에게 수첩을 줄 때 김기설이 뜨든

3-4장 외에는 뜯어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문 : 김기설이 뜯어낸 3-4장 외에는 뜯어진 면이나 흐트러진 상태는 아니었는가요.

답 : 다른 면이 뜯어진 것은 없었고, 또 흐트러진 상태도 아니어서 더 쓸 수 있다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문 : 일정표에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기억하는 데로 진술하시오.

답 : 주로 검은색 볼펜 또는 검은색 수성펜으로 약속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1, 2월은 약속장소 등의 기재가 없고, 3월인가 4월부터 약속장소의 기재가 있으며 5월 12일까지는 약속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경 어느날인가는 확실치 않으나 두군데 정도 날자위에 "브이" 표시가 있었던 것이 기억나고 또 저를 만난 5월 7일날 18:00에 "가든호텔"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기억나고 5월 6, 7, 8일 중 한군데에 "지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기억합니다.

문 : 5월 둘째주의 기재부분을 뚜렷이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5월 7일 김기설이 가든호텔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있었다고 하여 나중에 집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뚜렷이 기억합니다.

문 : "가든호텔"이라는 기재는 무엇으로 쓰여져 있었는가요.

답 : 검은색 수성펜이었습니다.

문 : 일정표 부분의 기재 중 연필로 기재된 부분은 없었는가요.

답 : 연필이나 샤프로 기재된 부분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문 : 눈에 띄는 다른색 싸인펜이나 형광펜 같은 것으로 기재된 부분은 없었는가요.

답 : 그런 것으로 쓰여진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문 : 수첩을 뜯어낸 부분은 찢어진 선이 매끄럽게 일직선으로 뜯어져 있었는가요.

답 : 완전히 일직선이 아니고 다소 울퉁불퉁하게 찢어졌습니다.

문 : 회원단체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 부분에는 기재된 것이 있었는가요.

답 : 회원단체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은 인쇄되어 있

는데 그동안 변경된 부분을 고쳐 기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문 : 고쳐 기재한 부분은 어떤 필기구로 고쳐 기재되어 있었는가요.

답 : 필기구의 종류는 뚜렷치 않으나 검정색이었습니다.

문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창립선언문과 규약은 그 부분에 다른 기재가 없었는가요.

답 : 뜯어진 것도 없고 다른 기재도 없었습니다.

문 : 규약 부분의 마지막 장은 있었는가요.

답 :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모눈종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가요.

답 : 모눈종이 부분에 기재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수첩의 뒤 부분 등에 김기설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기재가 있었는가요.

답 :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김기설이 형광펜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전에 노란색 형광펜을 다니는 것은 보았습니다.

문 : 위 수첩 일정표에 형광펜으로 기재한 부분이 있었는가요.

답 : 형광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문 : "가든호텔"이라는 5. 7.의 약속부분에 수정하거나 지운 흔적은 없었는가요.

답 :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위 부분에 "지혜"라고 기재된 것이 생각됩니다.

문 : 당시 진술인이 받은 수첩을 보면 알 수 있는 가요.

답 : 보면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 : 이 수첩이 그 수첩인지 살펴보시오.

이때 김사는 진술인에게 전민련측이 제출한 수첩을 제시하고 확인시킨 바,

답 : 전체적으로 비슷하나 제가 받았던 수첩보다 수첩이 흐트러져 있고 그 다음에 일정표란이 검은색 외에도 연필, 청색 필기구, 녹색 하이테크펜, 분홍색

형광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원단체란에 검은색이 아닌 청색으로 쓰여져 있는 점, 가든호텔이라는 57자 약속이 검정색이 아닌 녹색 하이테크펜으로 기재되어 있고 "홍익서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수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전화번호 기재면이 한 장 없고, 모눈종이 부분이 석장이 없는 점 등이 달라 지금 본 수첩이 바로 그 수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기재는 검은색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청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도 제 기억과는 다릅니다.

문 : 진술인은 전화 진술시 인재근이 위 수첩은 수배자인 한상렬의 연락처가 있어 밖에 나돌면 안되므로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여 최초 검찰에 와 진술할 때 수첩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왜 위 수첩에 한상렬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진 않은가요

답 : 그 부분은 따로 떼어 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 진술인이 위 수첩을 원순용에게 교부하기 전에 수첩에 한상렬의 전화번호가 있는 것을 보았는가

답 : 제가 한상렬의 전화번호를 위 수첩에서 본 기억은 없고 인재근이 그러한 말을 하여 한상렬의 전화번호가 그곳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입니다.

문 : 위 수첩의 절취면이 울퉁불퉁한가요

답 : 상당히 일직선으로 고르게 찢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 제 기억보다는 더 매끄럽습니다.

문 : 위 수첩은 진술인 앞에서 김기설이 3, 4장 뜯어낸 것이 확실한가요, 나중에 전민련측에서 뜯어낸 것이 아닌가요

답 : 제 앞에서 3, 4장을 뜯어낸 것이 확실합니다.

문 : 수첩에 관하여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수첩의 전화번호 기재는 제 기억으로는 검은색으로 쓴 것인데, 며칠전 텔레비전을 보니 청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가 착각을 하였나 하였습니다.

문 : 5. 7. 일 밤 김기설과 헤어질 당시 김기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답 : 다른 소지품도 없고, 신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으며 제가 본 것은 녹색 하이테크펜과 샤프펜이었습니다.

문 :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중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함으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케 하다.

진술자 홍성은

1991. 5. 26.

검찰청

검사 송명석

검찰주사(보) 신인섭

☐자료 가-1-86 (수사기록 637)26

구속영장

영장번호 6191

사건번호

사건명 자살방조

피의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피의자 강기훈(姜基勳, 일명:이현우, 상수, 김명훈)

생년월일 1964. 3. 29. 생 (27세)

직업 전민련 총무부장

주거 서울

인처구금할 장소 서울구치소

위 피의사전에 관하여 피의자를 구속한다.

이 영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의 요구에 의하여 발부한다.

이 영장은 1991년 7월 25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1991. 5. 26.

판사 김전중

26) 원본이 공판기록(36쪽)에 편철되어 있지만 일차상 원본을 수사기록으로 옮긴다. 집행일시 등은 후에 추가기록된 것이다.

집행일시 1991년 월 일 시 분

집행장소

인처일시

인처장소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

199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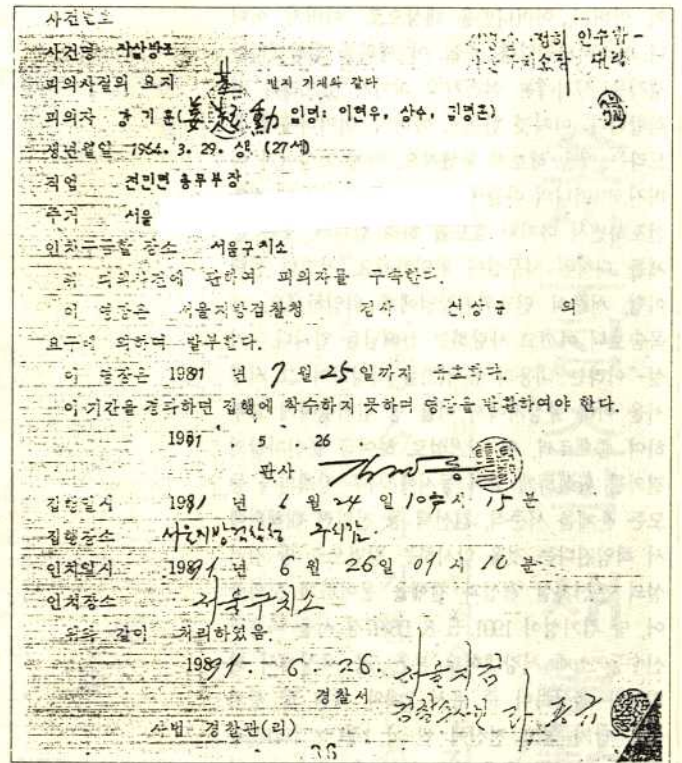
서울지검 검찰주사보

범 죄 사 실

피의자 강기훈은 1982. 2. 23. 세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3.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에 입학하여 1985. 8. 31. 학사경고 제적을 당한 자로서 단국대학교 "군부독재 타도와 민중민주정부수립 및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약칭:삼민투위) 위원장으로 활약하던 중 1984. 11. 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류 10일을, 1985.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구류 10일을 각 선고받고, 1985. 11. 18. 서울 강동구 가락동 소재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에 침입, 농성, 방화한 소위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1986. 3. 28.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7. 11. 경 그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현재 이현우라는 가명으로 전국민족민주운동국민연합(약칭:전민련) 총무부장직에 있는 자인 바,

1991. 5.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의 망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의와 결행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한국신학대학 레포트용지에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함에 있어, 위 망 김기설은 1982경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소재 광탄중합고등학교 1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

유자로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의자의 지식과 문장력을 이용, "단순하게 변혁운동의 도화선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자 함은 더욱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밝은 현실과는 다르게, 슬프게, 아프게 살아가는 이땅의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속에 얻은 결론이겠지요. 노태우정권은 퇴진해야 합니다...중략...노태우정권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민중권력 쟁취를 위한 행진을 위해 모두가 하나되어야 합니다.-김기설-"이라는 내용의 유서 (1)와, 위 김기설은 5세때 생모가 사망한 후 주로 누나 손에서 자라나 생모에 대한 기억은 물론 계모에 대한 정이 전혀 없어 유서의 내용에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큰누나 김화자를 비롯한 3명의 누나와 3명의 자형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누나들과 자형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



이, 아버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행위를 일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지껏 한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지요 이제 기설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조국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효도를 하려 합니다. 모든 문제를 대책위 사무실에 위임하세요. 전민련 선택이형, 서준식 인권위원장님에게 위임하세요. 제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들입니다. -기설-"이라는 내용의 유서(2)를 작성하여 그 시경 서울 이화 불상지에서 이를 망 김기설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위 김기설로 하여금 분신자살의 결의를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 장례의식 등 모든 문제를 서준식, 김선택 등 전민련 대책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망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망 김기설이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피의자가 작성하여 준 유서 2매와 사진 및 상의 등을 남겨 놓고 전신에 썬-너 1통(약 2리터)을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후 지상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2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케 함으로써 위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자료 가-2-21 (동아, 91년 5월 26일)

金씨수첩조작 새 쟁점으로

김철 遺書와 필적은 같지만 훼손된 흔적
全良聯 金씨가 기록하는 것 학생들이 봤다

79.5.26 동아

분신자살한 망 김기설의 유서(2)를 작성하여 준 시경 서울 이화 불상지에서 이를 망 김기설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위 김기설로 하여금 분신자살의 결의를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 장례의식 등 모든 문제를 서준식, 김선택 등 전민련 대책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망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망 김기설이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피의자가 작성하여 준 유서 2매와 사진 및 상의 등을 남겨 놓고 전신에 썬-너 1통(약 2리터)을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후 지상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2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케 함으로써 위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대림약화학 소금치약

분신자살한 망 김기설의 유서(2)를 작성하여 준 시경 서울 이화 불상지에서 이를 망 김기설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위 김기설로 하여금 분신자살의 결의를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 장례의식 등 모든 문제를 서준식, 김선택 등 전민련 대책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망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망 김기설이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피의자가 작성하여 준 유서 2매와 사진 및 상의 등을 남겨 놓고 전신에 썬-너 1통(약 2리터)을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후 지상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2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케 함으로써 위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분신자살한 망 김기설의 유서(2)를 작성하여 준 시경 서울 이화 불상지에서 이를 망 김기설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위 김기설로 하여금 분신자살의 결의를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 장례의식 등 모든 문제를 서준식, 김선택 등 전민련 대책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망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망 김기설이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피의자가 작성하여 준 유서 2매와 사진 및 상의 등을 남겨 놓고 전신에 썬-너 1통(약 2리터)을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후 지상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2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케 함으로써 위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91년 5월 27일

자료 가-1-87 (수사기록 580)

기안용지 (전화: 530-4941)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3377

시행일자 1991. 5. 27.
주임검사 윤석만
수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참조 문서감정실장
발신명의 검사장
제목 문서철취선 일치여부 감정결과에 대한 보충질의

당청에서 1991. 5. 24. 귀 연구소에 전민련 제출의 수첩 절취선 일치 여부에 대한 감정의를 하였고(강력23110-013052), 같은 달 25. 귀 연구소로부터 감정결과 회보를 받았는 바(이화삼23110-5657), "수첩에서 찢어져 있는 전화번호기입 부분 3매와 수첩에 남아 있는 잔류부분의 절취선은 일치되지 아니함"이라는 감정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충질의 하고자 하니 그에 대한 답변을 당청 윤석만 검사실로 회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 1. 찢어져 있는 전화번호기입 부분 3매와 수첩상의 잔류부분 절취선을 대보았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감정사진상 위치 표시요망).
2. 기타 절취선에서 관찰되는 차이점에 대한 설명사항. 끝.

자료 가-1-88 (수사기록 581)

기안용지 (전화: 530-4941)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3378

시행일자 1991. 5. 27.
주임검사 윤석만
수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참조 문서감정실장
발신명의 검사장
제목 필적 동일여부 감정의회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에 필요하니 다음 3가지 필적 상호간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윤석만 검사실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1. 유서 2매.
2.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1권(찢어져 있는 전화번호부 기재 부분 3매 포함).
3. 수사기록에서 발췌한 강기훈 작성의 진술서 1부. 끝.

자료 가-1-89 (수사기록 582~583)

서울 지방검찰청 1991. 5. 27.

수신 검사 신상규
제목 수사보고

이건 피의자 강기훈에 대한 자살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이 유서를 대필한 사실이 없다면 유서내용을 직접 써보인 글씨와 이와 관련내용이 보도된 1991. 5. 27.자 경향신문의 보도기사를 별첨과 같이 첨부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1991. 5. 27.자 경향신문 보도기사(27) 1부. 끝.

강력부 제1020호 검사실
검찰주사 신인섭

27) 종자료집 III책 654쪽 참조.

자료 가-2-22 (동아, 91년 5월 27일)

姜基勳씨 사전令狀
檢察 金基高씨 자살방조 혐의
姜씨 직접 써보여
姜씨 명의 遺書내용 일부
姜씨 직접 써보여
姜씨 명의 遺書내용 일부